

월간 가든인 12월호

December 2014 Monthly Gardenin

특집
기사

가든인팁 겨울정원의 식물 탐방



Garden in 겨울정원

프랑스 록아른 강가 고성인 겨울정원

아름다운 정원생활의 완성! 건강한 정원가꾸기

정원사의 알기

colour in the Garden



Garden in Horticulture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12월의 정원

우리 민족의 정서를 듬뿍 담고 있는 꽃

2014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

가든인 Tip Q & A



Garden in Design

꽃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정원의 완성 Step by Step

파랑재활사회

목공예의 즐거움



Cover Plant : 도봉새단 Sedum Spurium

ISSN 2288-1719



9 772288 171000

10,000원

Gardenin Information

CHRISTMAS의 유래와 세계의 크리스마스 풍경



에코홀 시스템 (특허 제10-1429481호)

ECHO 에코블릭(축대용)

수직의 웅벽!
이제 정원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답답했던 웅벽, 이제는 자유롭게
식재가 가능한 아름다운 웅벽으로 탈바꿈합니다.



ECHO 에코웬스(화분용)

- 광장, 도로가, 계단, 주차장, 경계용으로 입체적 디자인이가능한
신개념 실용화분
- 아름다운 노출 콘크리트에 식물을 직접 심을 수 있는 화분입니다.
- 엔틱과 모던함을 동시에 표현가능합니다.

측면에는 관목을 심어 안정감 유지하면서 윗면 상단에는 야초목을 식재하고 그 아래에는
야생화 또는 일년초를 복합식재하면 좋다.



구입 문의

벽화수(주) 전화 031.726.0610 / 010.9517.0610

DECEMBER COVER PLANT



단풍세덤 Sedum spurium

12월 ~ 3월의 겨울정원

옥외정원과

포트정원과

그리고

실내의 화분정원들

내 마음 속의 신비의 정원은

보다 광활한 심미안으로 내게 닥아온다

푸른 빛의 작은 단풍 세덤이

시간이 흐르며

겨울날 카메라 렌즈 속으로

흰 눈과 함께 찾아온 작은 로제트 모양

붉은 장미보다 더 아름답게

겨울정원에서

우리를 반긴다.

Gardenin 겨울정원

- 6 프랑스 루아르 강가 고성 겨울정원
- 12 주말특강반
아름다운 전원생활의 완성 건강한 정원 가꾸기
- 16 Colour in the Garden
- 24 정원사의 일기
- 38 정원 '속' 보이네
- 42 옥탑, 비밀의 정원

Gardenin Design

- 48 들꽃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 54 정원의 완성 Step by Step
WALLED GARDEN의 완공기
- 60 고양국제꽃박람회
- 64 독일의 묘원을 돌아보면서

Gardenin Horticulture

- 70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12월의 정원
- 74 우리 민족의 정서를 듬뿍 담고 있는 꽃
- 76 자연의 부산물로 만드는 리스
- 78 수경형 실내정원으로 아름다움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세요!
- 83 가든인 Tip Q & A
- 86 단군신화를 날게 한 마늘
- 96 2014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
- 102 청어 - 한강에서 노는 청년들!
놀이대장으로 거듭나다.

Gardenin Information

- 106 크리스마스특집
- 110 BOOK & FESTIVAL

Gardenin
Design

Gardenin
Tip

Gardenin
Horticulture



프랑스 루아르 강가 고성의 겨울정원

프랑스 루아르(Loire) 강가의 오래된 고성들은 프랑스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한번은 꼭 들리고 싶은 곳이다. 프랑스를 여러 번 방문했지만 오랫동안 그 고성들을 갈 기회를 잡지 못했었는데 12월 겨울이라도 한번 둘러 보고 싶었다. 투르(Tours)를 비롯한 몇몇 도시를 거점으로 고성들을 방문하는데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투르(Tour)에 도착해 숙소를 잡고 여행안내소에서 고성들을 가는 코스를 찾아보았다.

보통 루아르 강가에 흠뻑 자리 잡고 있는 고성들 중 볼만한 성 10개 정도를 추천하는데 이 중 쉬농소 성(Chateau de Chenonceau)과 빌랑드리 성(Chateau de Villandry)의 정원이 유명하다. 최근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쇼몽 성은 파리에서 투르에 도착하기 전 작은 시골역인 온자인(Onzine)역에 내려 1km

정도 걸어서 방문할 수 있다.

쉬농소 성과 앙부아스 성, 아제 르 히도 성, 클로루스 성을 가는 투어팀에 합류하여 네 개의 고성들을 방문하였고 겨울이라 겨우 인원이 되어 빌랑드리 성도 가 볼 수 있었다. 그 외 블루아 성(Chateau de Blois), 상보르 성(Chateau de Chambord), 쥘리 쉬르 루아르 성(Chateau de Sully-sur-Loire), 쉬농 성(Chateau de Chinon), 슈베르니 성(Chateau de Cheverny) 등이 있는데 투르에서 멀거나 차 없이 방문하기는 힘들고 겨울에 혼자 차를 렌트해서 가기에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 포기하였다.

고성의 정원을 잘 유지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외국 사려들을 참고로 우리도 좋은 유적지들에 걸맞은 정원을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다.

1. 쉬농소 성(Chateau de Chenonceau) <http://www.chenonceau.com>

루아르 강가의 고성들 중 가장 우아한 쉬농소 성은 대대로 여성 성주들의 성이었다. 카펫을 펼쳐놓은 듯한 프랑스식 정원인 성 왼쪽의 개서린의 정원과 오른쪽에 위치한 다이앤의 정원이 있고 그 외 미로, 16세기 농장, 녹색 정원, 채소 정원, 절화 수확을 위한 플라워 가든인 부케 공장과 놀이터가 있고 정원에는 동물들이 있다. 연중 오픈하는 성의 레스토랑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지 알 수 있다. 봄과 여름에 두 번 꽃을 심는데 꽃이 없는 겨울에도 정원이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다.



개서린의 정원

2. 빌랑드리 성과 정원(Chateau & Jardins de Villandry) <http://www.chateauvillandry.fr/en/>

주변의 숲을 비롯하여 입구를 들어서면 장식정원(사람의 정원과 십자정원), 물의 정원, 태양의 정원, 미로, 장식정원(음악의 정원), 허브가든이 있고 빌랑드리성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키친가든이 있다. 르네상스시대에 만들어진 빌랑드리 성은 성주가 바뀌면서 정원과 함께 계속 변형되었다. 성이 만들어질 때부터 조성되어 있던 장식적인 키친가든은 18세기에 포털가든(formal garden)으로 확장되었고 20세기에 다시 르네상스식으로 수정되었다. 최근에 허브가든과 태양의 정원 등이 증축되었다. 2009년 새로 부임한 책임가드너가 키친가든을 시작으로 빌랑드리성 정원 전체를 유기적 정원으로 바꾸었다. 현재 10명의 가드너가 관리하고 있다. 겨울이라 꽃이 없어 쓸쓸하지만 회랑목, 주목 등으로 경계가 된 정원은 겨울에도 프랑스 정원의 진수를 보여 주고 있다.



장식정원(십자정원)



키친가든

3. 앙부아즈 왕궁(Royal Château de Amboise) <http://www.chateau-amboise.com/en/>

르네상스 시대에 왕이 머무는 왕궁으로 바뀐 앙부아즈 성은 루아르 강의 전경을 파노라마로 내려다 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정원이 있다. 정원에는 구형으로 다듬은 회양목이 줄줄이 늘어서 있고 간간히 지중해 사이프러스가 높게 솟아 있어 겨울에 돋보이는 독특한 정원을 보이고 있었다. 그 많은 회양목 사이사이로 점적식 관수선이 가지런히 연결되어 있어 회양목이 수형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 거의 모든 낙엽교목들도 전정되어 독특한 가지선을 보이고 있다. 이 성의 성당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무덤이 있다 한다.

4. 아제 르 히도 성

(Château de Azay-le-Rideau)

<http://www.france.fr/en/art-and-culture/chateau-dazay-le-rideau.html>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아제 르 히도 성은 강과 숲에 둘러싸인 성이다. 성을 둘러싼 정원은 19세기에 영국식 정원으로 다시 디자인되었는데 남쪽과 서쪽에 거울처럼 성을 비추는 물의 정원이 만들어져 있다.



5. 클로 루스 성(Château de Clos-Lucé)

<http://www.vinci-closluce.com/en/>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원(Parc Leonardo da Vinci)이 조성되어 있는 클로 루스 성은 왕의 여름 별장이었다. 프랑수아왕에 의해 프랑스로 초청된 이탈리아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성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냈다 정원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생각을 볼 수 있는 많은 발명품들이 재현되어 있다.





6. 쇼몽 쉬르 루아르 성(Château de Chaumont-sur-Loire) <http://www.domaine-chaumont.fr>

쇼몽 쉬르 루아르 성은 루아르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캐서린이 쉬농소 성에 살고 있던 남편의 연인인 다이앤을 쇼몽 쉬르 루아르 성으로 강제로 보낸 이야기로도 알려져 있다. 이 성은 다른 성에 비해 작고 볼거리가 약한 편이었는데 1992년부터 매년 4~10월에 프랑스 국제 정원 페스티벌(Festival international des Jardins)을 유치함으로써 유명해졌고 이것 때문에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4계절 변치 않는 수확의 즐거움

4Season
포 시즌 원예용품



다목적가위 적과가위 전지가위 낫 양손가위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23 | 소비자상담실 : 080-022-3211
www.dorcoliving.co.kr

[강의를 경청하는 수강생]

아름다운 전원생활의 완성! 건강한 정원 가꾸기

우리꽃 아카데미 '정원 디자인 주말특강 현장'

취재 : 양지선

한해의 정원을 갈무리하고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11월, 20여명의 꿈꾸는 정원사들이 우리꽃 이천 농원에 모였다. 처음 모인 자리이지만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살아가는 교육생들의 눈이 강의에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모든 수강생들이 정원을 가꾸게 된지 3~4년 또는 이제 시작하거나 앞으로의 계획으로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일까, 짧은 자기소개를 하고나니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꽃' 그 속을 들여다보다

많은 꽃들을 심고 키우면서 우리 집 꽃들을 세밀하게 관찰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처음 꽃이 아름답다고 느끼고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의 그 마음을 생각해보다 꽃 속으로 들어가 본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는 어느 시인처럼 내가 알던 국화, 내가 알던 그 꽃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된다.



대부분의 개인 정원사들이 전문지식 공부 없이 취미로 정원을 시작하다보면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것이 길어지면 정원이 즐거움이 아니라 노동으로만 느껴지게 되기도 한다.

그럴 때 한 가지 조언은 식물공부를 조금씩 시작해보라는 것이다. 식물을 구입할 때 알려주는 상인의 정보나 미디어와 주변지인들이 알려주는 정보 외에 학명과 특성을 비롯한 식물의 생태를 말이다.

중요한 점은 식물 백과사전을 두고 어려운 라틴 학명과 빼곡한 식물정보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식물의 정확한 정보를 매치시켜가는 것이다.

“이렇게 식물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심일취, 일취일월 뒤에 다시금 그 꽃을 찾아보세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 볼 꽃인 것처럼 말이
고, 그렇게 반복하다보면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 알게 되고 나중에는
눈을 감고도 그 꽃이 보이게 된답니다. 나의 동반자, 나의 자매, 내가 사
랑하는 무언가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요.”

김시용 선생이 식물을 익혀가는 방향을 일러준다.



[국화와 부엉이를 분해해보고 그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속으로 들어가는법을 배우고 있다]



[색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정원에서의 활용에 대해 강의하는 오도 선생님]

정원에서의 '색'

정원에서 색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때문에 사전에 꽃들의 색깔과 분위기를 이해하고 계획과 구상을 통해서 정원을 만들었을 때는 그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정원의 테마, 종류, 기능에 따라서 색채의 기능을 잘 살려 배합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면 매년 나만의 정원으로서의 성취감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컬러만큼 중요한 것이 스케일감이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정원의 크기를 정확하게 인지하기위해 되도록 종이에 옮겨 그려보는 것이 첫 시작이다. 그 안에 심어보고 싶은 식물들을 넣어보면 완성된 정원을 예상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에서 많은 절약을 할 수 있다. 일단 처음 시도로 좋은 방법은 관리가 편리한 10m*20m의 땅을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꽃들을 색깔과 키를 고려하여 3줄로 그려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많은 꽃들을 넣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이 적절하게 완성 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다.



[오도 선생님이 유학시절 공부했던 컬러정원 사진첩]

우리집 나무 손질은 내손으로

정원공사를 업체에 맡길 수도 있지만 직접 시장에서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해본다면 묘목을 고르고 식재하고 또 원하는 수형으로 건강하게 가꿀 수 있도록 전정법도 익혀야 한다.

단풍나무와 같은 활엽교목을 고를 때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으로는 가지가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지점이다. 교목이 크게 자랄수록 가지는 양옆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무게를 지탱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단풍나무 전정법을 시연하고 있다]

수목 전정을 할 때는 전체 수형을 파악하고 중요한 가지와 잘라내야 할 가지를 판단해야 하며 겨울에는 약전정, 꽃을 본 후에는 강전정을 시도해도 좋다. 전정은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나무가 상처를 입는 작업이기도 하다. 건강하게 회복 할 수 있도록 추운 계절에는 전체적인 수형조정보다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주는 정도만 작업하는 것이 좋다.



[수목 식재 후 물을 충분히 준다]

정원원에서 잦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 시장에서 구입한 묘목을 심었을 때 고사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주의해야할 점으로는 기본적으로 수목을 바로 세워서 식재하도록 하며 주변으로 물고랑을 만들어 충분히 물을 준 후 반드시 물이 다 흡수된 뒤 그 위에 겔흙을 덮어주는 것이다. 겔흙을 모두 덮은 후 물을 주게 되면 표면이 갈라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말 2회에 걸친 총 8시간의 수업으로 포괄적인 정원교육을 펼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기본적인 정원지식 전달에 집중한 교육이었다. 교육생들의 열정과 다양한 질의에 전문적인 응답을 해준 풍부한 경험의 두 강사들까지,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교육현장이었다.

2015년도에도 계속되는 그린아카데미6기와 정원디자인 전문 특강반 문의는 전화와 이메일로 가능하며 사전 정보 등록 시 우리꽃에서 개강하는 모든 교육 강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화: 031-634-7990, 이메일: gardenjoa777@naver.com



'정원 디자인 주말특강' 교재

주말특강에 특화된 교육교재
우리꽃 교육기획실



WHITE



Abies nordmanniana 'Golden Spreader' (Wisley Garden)

오도
 불무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일본 惠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여미지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 정원은 상상만 해도 설레임으로 가득하다.

파란 잔디밭을 덮은 눈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에서부터,
 가느다란 나뭇가지 마다 소복소복 쌓이는 광경을 보고 있으면 경이롭기까지 하다.
 추운 겨울 낙엽수와 초본류들은 잎을 떨구고 모습을 감추지만,
 내년을 위한 새순을 가지 끝마다 매달고 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웬지 든든해 보이는 나뭇가지를 보고 있으면
 많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한다.
 하얀 눈이 녹아내리면 땅에서는 초본류들의 새순과 꽃봉오리들이 힘겹게 올라오고 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피어나는 헤더(Heather, Erica spp.) 역시 다른 꽃들이 모두 잠든
 겨울이라서 더욱 아름다운지도 모르겠다.
 윈터가든의 매력은 봄부터 가을까지 감추고 있던
 자연의 속살과도 같은 부드러움일 것이다.



Heather collection (Wisley Garden)



Hamamelis x intermedia 'Ruby Glow' (Wisley Garden)



Hamamelis mollis 'Pallida' (Witch-Hazel Nursery)



Heather collection (Wisley Garden)

1. 사계절을 품은 아름다운 칼라를 모두 볼 수 있다

봄을 상징하는 색을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노란색일 것이다. 풍년화(Hamamelis sp.)는 열은 노랑에서 짙은 노랑 그리고 분홍에서 주황에 이르기까지 노란색과 빨강으로 이어지는 톤은 꽃을 피우며 윈터가든을 장식한다.

갈색의 꽃봉오리가 터지면 실낱같이 가는 꽃잎들이 꼬물꼬물 피어오른다. 아주 가는 꽃잎들이 모이고 모여 나뭇가지를 덮으면, 겨울의 추운 기운이 따사함으로 바뀌는 걸 느끼게 된다.



침엽수 Winter Garden (Hillier Garden)

여름을 알리는 색으로는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하는 침엽수(Conifers)일 것이다. 키가 그리 크지 않으면서 연둑빛과 초록의 다양한 빛깔로 겨울의 쓸쓸한 정원을 생동감 있게 해 준다.

Cornus cvs. (Winter Garden ambridge Botanical Garden)

가을의 매력은 역시 울긋불긋한 단풍의 느낌. 주로 줄기를 보기 위해 윈터가든에 심은 말채나무(Cornus cvs.)는 빨강과 노랑계 혹은 주황색으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Snow at Wisley Garden

그리고 겨울은 역시 눈이 내려서 더욱 아름다운 계절이다. 눈 내린 정원은 온통 깨끗한 화이트 칼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순결한 이미지 그 자체이다.

2. 하얀 눈속에서 더욱 눈이 부시는 화이트 칼러

낙엽수 아래에서 봄 햇살을 충분히 받은 후에 피어나는 갈란서스(*Galanthus sp.*)는 흰색이라서 더욱 겨울과 잘 어울린다. 마치 고요히 잠이 든 것 같은 낙엽수들의 자태 아래에서 다소곳이 고개 숙이고 피어나는 갈란서스(*Galanthus sp.*) 꽃이 작아서 조심스럽고, 여럿이 모여서 피어나 다정다감한 녀석들이다.



갈란서스(*Galanthus sp.*) 못지않게, 윈터가든을 조용하게 자리 잡고 있는 헬레보리스 나이거(*Helleborus niger*)가 있다. 한겨울 비교적 큰 꽃이 피는 헬레보리스 나이거(*Helleborus niger*)는 크리스마스에 피는 장미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로즈'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

3. 봄을 기다리며 눈 속에서 피어나는 강인한 꽃들의 칼러

무채색인 흰색은 기본적으로 어떤 유채색과도 잘 어울린다. 파랑빛과 핑크색의 노루귀(*Hepatica sp.*)와 나비 모양을 한 분홍색의 시클라멘(*Cyclamen sp.*) 그리고 중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헬레보리스(*Helleborus sp.*)는 눈과 만나면 더욱 밝게 빛난다. 눈을 뚫고 올라오는 그곳에만 아름다운 빛이 닿는 듯한 밝기가 더욱 매력적이다.





4. 내추럴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브라운 & 화이트 컬러

Quercus sp.(Anglesey Abbey)

봄부터 가을까지 그늘을 만들어 주던 참나무(Quercus sp.) 잎이 떨어진 자리에 갈란투스(Galanthus sp.)가 겸손한 자세로 피어난다. 내추럴한 이미지의 브라운 컬러는 갈색의 흙을 연상시키지만, 낙엽의 색이기도 하다. 흙과 낙엽은 우리들과 가장 친한 색이기도 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 쓸쓸함을 느끼는 겨울.

SunSet at Wisley Garden

또한 봄부터 가을까지는 보지 못했던 나뭇가지들이 뿔뿔이 나뉘어 나가면서 만들어 내는 공간의 구성이, 정원을 걷는 이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한국정원디자인학회 창립 소식

김홍련 글/사진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고조되고 있다. 정원은 이제 더 이상 꽃으로 장식하는 공간이기보다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 건강 회복 등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토요일 서울시 삼성동 푸르지오 벨리에서 '한국정원디자인학회(이하 정원학회)'가 창립했다.

정원학회는 창립총회에서 정원을 공공 정원(public garden)으로 발전과 정원을 하나의 문화로 보급하고, 정원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 동안 국내 정원 관련학회는 한국전통조경학회와 한국원예학회에서 정원 연구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이 두 학회의 정원 관련 학문적 연구와 활동이 업계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비했다. 이번 한국정원디자인학회가 창립이 된 만큼 정원을 공부하고 관심있는 가든인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마련되고, 한국 정원 문화 융성에 밑거름이 되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Inaugural General Meeting of

KOREA INSTITUTE OF GARDEN DESIGN

한국정원디자인학회 창립 총회

2014.10.18 (토) 오후 2시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

Hillier Gardens

관상정원 Ornamental Garden

12월이 되면 겨울의 시작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원의 휴식으로 생각하고, 정원에서 별로 할 일이 없거나 식물원이나 수목원에 가봐야 별거 있겠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추위에 약한 식물들 보호한 것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겨울이냐 말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식물들의 열매와 가지의 색깔 그리고 나무의 수령을 볼 수 있는 시기이다. 특히 낙엽수의 가지와 노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리고 열매는 나무의 과를 알 수 있는 묘소가 된다. 또한 그 동안 두터지게 보이지 않았던 침엽수의 잎을 잘 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이번 호에서는 겨울에 흥미가 있고 잎, 열매, 수피의 색깔, 관상가치가 있고 꽃에 향기가 있는 식물들 가지고 만든 겨울정원(Winter Garden)의 사례와 식물들 소개하고자 한다. 부족한 줄이지만 독자들이 겨울정원을 만들어 재미있는 겨울을 보내는데 작은 역할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필자 허능 본 겨울정원은 영국의 힐리어식물원(Sir Harold Hillier Gardens)의 겨울정원(Winter Garden)이다.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1년간 연구용으로 보냈다. 겨울에서 이듬해 봄까지 많은 시간을 겨울정원에서 보냈다. 가서 보면 좋겠지만 시간과 돈이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짧은 글과 부족한 사진으로 힐리어식물원의 겨울정원을 소개하고자 한다.

힐리어식물원의 겨울정원

힐리어식물원의 입구에 있는 방문객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겨울(1월에서 3월까지)의 관상이 되는 식물들이 650종류 이상이 된다. 겨울정원에 대한 고민은 겨울에는 식물원에 가도 별 것 없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하는데서 시작되었다. 2014년 현재 겨울정원은 약 5,000평 가까이 되고, 유럽에서 가장 큰 면적이다. 늦겨울에서 이른 봄에 꽃이 피는 500여개의 시클라멘(*Cyclamen sp.*)이 심어져 있고, 나무껍질에 줄기에 색깔이 있거나 일찍 피는 꽃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에 향기가 있는 식물 그리고 잎에 관상가치가 있는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다. 방문객 센터 가까이(겨울정원의 외곽)에는 관목류로 버드나무(*Salix spp.*), 흰말채나무(*Cornus spp.*)가 과목류는 영국 자생의 자작나무(*Betula pendula*, *B. pubescens*)가 있다. 이외에도 *Acer griseum*(적피단풍), *Betula utilis*, *Betula ermanii*(사스래나무), *Pinus bungeana*(백송), *Ophiopogon planiscapus* 'Nigrescens'(syn. *O. japonicus* 'Nigrescens', 흑룡 소엽맥문동), *Rubus cockburnianus* 'Golden Vale'(산딸기속) 등이 있다.

>> *Acer pensylvanicum* 'Erythrocladum'



낙엽활엽의 과목으로 자라며 어린가지는 밝은 분홍색이 특징이고 줄기는 빨간 빛이 나며 흰색 선이 줄기에 세로로 나있다. 잎은 가을에 노랑으로 단풍이 든다.

>> *Betula utilis* var. *jacquemontii* 'Jermyns'



원종에 비해 더 크게 자라며 수형이 원뿔형이다. 마상화서의 길이가 17cm정도로 원종에 비해 길다.

>> *Betula utilis* var. *jacquemontii* 'Silver Shadow'



원종에 비해 수형이 원뿔형으로 자란다. 마상화서의 길이가 15cm정도로 원종에 비해 길다.

>> *Betula utilis* var. *jacquemontii*



낙엽활엽으로 과목이며 자생지는 히말라야 지역이다. 나무껍질은 흰색이며 가을에 노랑으로 단풍이 든다.

>> *Cornus alba* 'Elegantissima'



낙엽활엽으로 관목으로 자라며, 짙은 빨강의 가지가 있다. 잎은 가장자리에 흰색으로 두른다. 꽃과 열매는 흰색이다.

>> *Cornus alba* 'Sibirica'



낙엽활엽으로 관목으로 자라며 빨강색의 가지는 겨울에 밝은 선홍색으로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 *Cornus sanguinea* 'Midwinter Fire'



낙엽활엽의 관목으로 자라며 가지는 주황, 빨강, 노랑의 가지가 특징이며, 이 종류의 원예종 중에서 가장 밝은 색깔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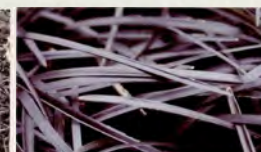
>> *Cornus sericea* 'Flaviramea'



낙엽활엽의 관목으로 백백하게 자라며 가지의 특징은 여름에서 가을에는 옅은 노랑이다가 겨울이 되면 짙은 노랑으로 이쁜 불까지 간다. 잎은 가을에는 빨강색이나 주황색으로 단풍이 든다. 꽃과 열매는 흰색이다.

>> *Ophiopogon planiscapus* 'Nigrescens'

여러해살이 초본류이고, 원종의 잎은 좁고 길며 녹색이지만 이 원예종의 잎은 검정색이 것이 특징이다. 꽃은 흰색이나 연한 자주색이고 열매는 광택이 나는 검정색이다.



>> *Euonymus fortunei* 'Emerald 'n' Gold'



상록활엽의 관목으로 바다를 기어 자라거나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며 이는 줄기에 흡수력이라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원종의 잎은 녹색인 반면에 이 원예종의 잎은 가장자리를 노랑으로 두른다. 겨울에는 잎 끝이 분홍색으로 바뀐다.

고요한 겨울정원의 산책로, 정원공간의 재발견과 기쁨

11월에서 3월까지의 겨울 정원의 기간이 한국에서는 정원이란 개념에서 잊혀져, 마음에서도 정원을 멀리하며, 식물과의 교감의 시간도 나누려 하지 않는다. 흰눈이 쌓이거나 흰 서리가 쌓인 정원을 보며 그 이전의 시간에서 느끼지 못한 감동과 신비로움이 아침마다 식물과 소통을 하도록 유혹한다. 머그잔에 짙은 커피한잔을 준비하여 겨울 정원을 거닐며 만나서 대화하며 늘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대화를 나눈다. 초목의 짙은 수목에서 풍겨 나오는 향 내용은 다른 어느 계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신선한 향 내용이다. 가든인 에서 Sir Horland Hillier Garden 의 겨울정원을 조금 더 소개하며 각각의 수목들과의 겨울정원에서의 만남 소개하려고 한다.

고요한 겨울 정원을 산책하며 독자들에게 겨울 정원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의 디자인을 살펴보고도록 권고도 하고 싶다. 겨울 철 싱그러움을 주는 아주가 립톤의 싱그럽고 짙은 잎은 스쳐 지나갈 때마다 봄을 준비하는 마음을 모두에게 전달한다.

겨울 정원에서 추위에 아무것도 느끼지도 볼 것도 없다면 하나하나 Hilliers Garden의 수목이 전하는 메시지와 식물에 대한 관심사를 갖는 시간이 되며, 정원공간의 연출은 겨울 정원에서 기본이 시작됨을 삶의 시작으로 설계 하시리라. 심은 나무껍질 관찰, 대담한 색의 줄기, 향기와 경엽의 팔레트 기능등 Hilliers Garden을 산책하듯 하나하나 겨울 정원의 길을 나서본다.



Winter Garden at Sir Harold Hillier Garden



겨울정원에서 만나는 Cornus sericea 의 줄기모습



Cornus sericea 잎의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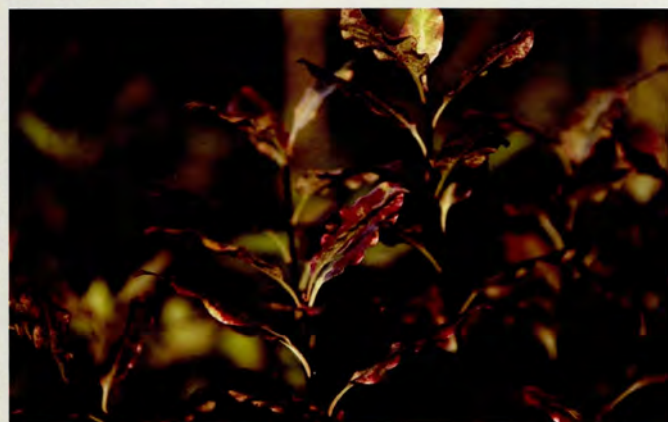
개화시 흰꽃의 Cornus sericea



자작나무 Silver Birch

(Betula utilis var. jacquemontii)

겨울 정원에 한그루의 자작나무 만으로도 이야기를 만들어 가며, 흰 백색의 나무껍질에서 무언가 마음을 전하려는 대화를 나무와 나 사이에 격식을 차리며 이야기 하려는 듯 운치를 더한다. 서리가 내린 아침에 특히 겨울에 최고의 정원수로 우리는 실버 버치 (Betula utilis var. jacquemontii) 겨울 빛을 띄는 화려한 빛나는 흰 껍질을 가지고 있다. 밤에 저녁 정원을 장식한다면 라이트로 나무 밑에서 조명을 쏘아주면 환상의 흰백색 나무 한그루가 멀리서도 모두를 반긴다.



금전수 돈나무과

Pittosporum tenuifolium 'Tom Thumb'

Purple-red(초코렛톤) 잎사귀의 evergreen 관목. 기온만 적당하다면 정원수로 심고 싶은 욕심이 나는 나무이다. 여러 종류가 있으나 모두에게 보이곤 겨울나무 관상수.



남천의 가을 열매 Nandina domestica berries

오렌지 열매를 갖은 매자나무(남천) Nandina domestica 겨울 정원의 풍치를 더하여준다.



남천 Nandina domestica



Euphorbia with golden stems of *Phyllostachys aurea*(노란대나무)



적피단풍나무 *Acer griseum* bark

‘겨울정원’을 방문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식물에 대한 민감하게 느끼지 못한 것을 멋지게 식물을 이해하고 놀라운 발견을 느낄 수 있다. 황당한 겨울 하늘아래 사진에서 노란색과 오렌지톤의 *Cornus*의 줄기는 마치 태양이 불 줄기를 당기는 듯 한다. 뒤의 어린 버드나무 줄기와 대비되는 *Acer griseum* 적피단풍나무의 훌륭한 수피를 관찰한다면 겨울정원의 매력에 빠질 것이다.

달콤한 향기를 풍기며 따뜻한 색상까지도 안겨주는 풍년화, *Hamamelis × intermedia* Bernstein

겨울에 정원방문은 정원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의 구조상 여름이 역시 중요하지만 일단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의 관심을 받은 후 다소 외면하는 것은 겨울에 별 거벗은 정원을 만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겨울 정원에서 뒷 배경의 노란 대나무 (*Phyllostachys aurea*)의 빛나는 줄기의 멋진 모습과 대비된 당당한 *Euphorbia* 유포비아의 싱그러운 모습도 겨울정원의 경관이다



풍년화 *Hamamelis × intermedia* Bernstein



그라스 *Stipa tenuissima*

그라스는 겨울에 멋진 경관을 연출하며, 특히 빛을 받을 때의 경관은 또 다른 연출을 자아내는 겨울 정원의 유혹적인 식물 자연의 바람으로 가장 작은 호흡을 하듯 움직이는 우아한 일 을 만드는 그라스의 겨울 정원의 연출중 특히 좋은 *Stipa tenuissima* 그라스는 정원의 움직임을 제공하는 식물로 대표 한다



Trees and stems at Sir Harold Hillier Garden



Paperbark Maple *Acer griseum* Bark Vertical



Paperbark Maple *Acer griseum* Bark



Paperbark Maple *Acer griseum* Bark Closeup



겨울정원의 묘미 "수피"의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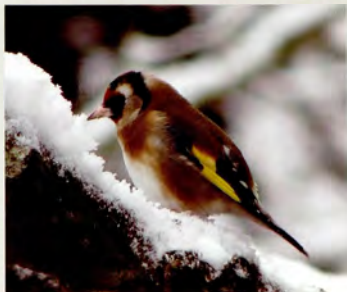
정원사는 늘 민감하고 부지런한 관찰력, 호기심과 창의력을 갖아야 하며 특히 겨울날 자작나무와 적피 단풍나무의 수피감 상은 최고의 경관이지만, 관심이 없다면 찬바람 휘날리는 겨울 정원을 누가 보려 하겠는가? 봄은 찾는자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며 보다 넓은 안목을 갖은 자에게 즐거움도 따른다.



Hillier Garden의 설경



동백화 Hamamelis



누구나 봄, 여름, 가을은 바라본다.
그리고 단조로운 흰 눈이 쌓인 겨울이 왔을 때
모두 바라보는 문을 닫아 버린다.
하지만 숲의 요정은 긴 겨울 밤동안 봄을 준비한다.
- C. Baudelaire
프랑스시인

향에 취하게 만드는 서향 *Daphne odora* (winter daphne) hardy plants



Daphne odora 서향



Daphne odora 서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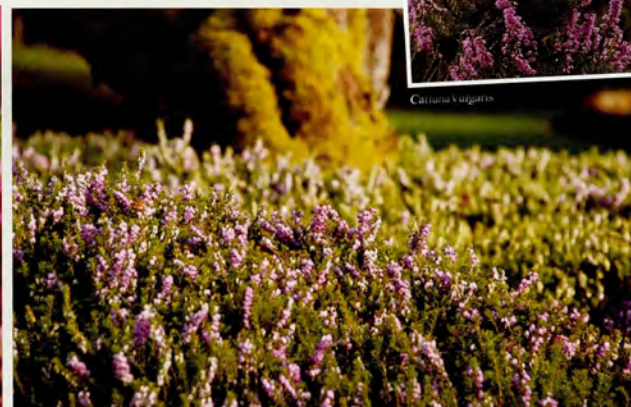
Camellia x williamsii 'Citation' 동백나무의 꽃

Camellia x williamsii 'Brigadoon' 보다 새로운 품종의 동백나무가 반기는 겨울정원

보라빛 헤더 *Calluna vulgaris*



Calluna vulgaris "Dark Beauty"



Hea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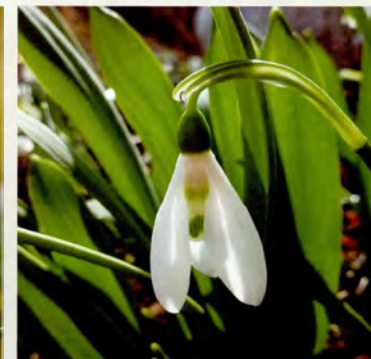
Calluna vulgaris

고고하게 추위 속에서 핀 *Galanthus nivalis* 고개를 떨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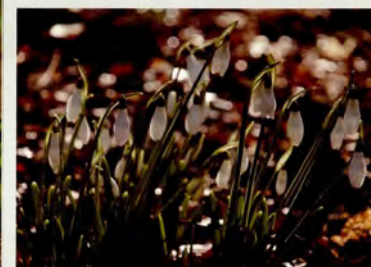
Hilliers Garden 의 겨울 정원에는 끝없는 향연이 이어간다.



Galanthus-nivalis



Galanthus elwesii flower



Snowdrops in the morning sun



Hydrangea flower heads in winter



꽃이 진후, 겨울정원의 수국 꽃의 아름다움이 이 정원이 주는 묘미이다.



과수정원

Fruit Garden



딸기(*Fragaria* spp.)는 과수일까? 채소일까? 과수는 열매를 먹고 채소는 잎, 줄기, 뿌리를 먹는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딸기는 과수에 속한다. 소개하고자 하는 딸기는 초겨울 까지도 열매가 달린다. 우리 집 두 아이는 유독 딸기 꺾을 좋아한다. 마을에서 구운 우릴 빵에 발라먹어도 좋고, 마을에서 만든 요거트에 섞어서 먹을 수도 있고, 여름엔 딸기 쥬스와 요거트를 섞어서 얼려 먹어도 좋다.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사는 아이스크림에 향신료, 색소 등이 들어가 몸에 좋지 않은 건 누구나 아는 사실 일 것이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을 땐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향신료, 색소는 피할 수 있다. 딸기의 원예종은 일계성 딸기와 사계성 딸기로 나눌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자료와 논산딸기시험장 자료 인용)

원예종 (Cultivated Variety)	재배계절	온도	낮 길이와 착과(着果)	종류
일계성	겨울-봄	낮음	낮 길이가 짧으면 꽃을 만들고 과일이 달림.	싼타매향 x 설향) 다인(장희 x 욱보) 레드벨(금향방암) 육원(조홍 x 장희) 한운(설향 x 금향) 운행(행향 x 금향)
사계성	여름-가을	높음	낮 길이가 길어도 꽃을 만들고 과일이 달림.	관해(신품종보호등록) 플라멩코(영국에서 육종해 신품종보호등록함, 2002년)

우리나라에서 사계성 딸기인 '플라멩코'를 재배하거나 증식해 모종으로 판매하려면 '플라멩코'를 품종등록한 영국의 East Malling Research와 계약한 우리나라의 A회사에 로열티를 물어야 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플라멩코'를 육종한 영국은 '플라멩코' 육종의 모(母)종이 없다는 것이다. '플라멩코'의 모종은 북아메리카원산의 딸기(*Fragaria virginiana*)를 엄마로 칠레원산의 딸기(*Fragaria chiloensis*)를 아빠로 교배한 딸기(*Fragaria x ananassa*)에서 육종 선발된 것이다.

즉 모종이 없는 나라인 것이다. 남의 나라에서 가져와서 자기 것처럼 우기고 권리를 내세우는 꼴인 것이다.

신품종보호의 이면

- 딸기가 올해 2012년 7월부터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 도입품종이나 신품종 보호출원된 딸기품종에 대해서는 재배시 주의해야 하며, 모든 딸기를 재배하거나 증식해 모종으로 판매하려면 반드시 육종회사의 승낙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 유전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유전자원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전통지식 및 농부권 보호를 중요시 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남미 국가들이 그러하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FAO의 국제조약에 따라서 만이 아니라 생물다양성협약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연합이 모델법을 만들면서 제안했듯이 이는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더욱이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농민들에게 자신들의 재산을 위한 자기채증은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농민들이 종자주권을 위하여 토종종자를 되살리고 있고 자가채증을 통하여 이 종자들을 계속 재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토종 유전자원들에 대해서 그 어떤 보호조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법으로 정해진 기본적인 재래종 유전자원의 재배를 위한 정책은 물론이고 자기채증에 대한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농업 자체를 규모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을 또다시 재편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전통적인 농업을 이어오는 중소농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가들의 생존조차도 위협하고 있다. 종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고자 하는 것은 단지 종자값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다. 품종보호를 등록한 종자회사 등에 대하여 종자사용료를 내는 것이 아까워서는 더더욱 아니다. 종자를 지키는 것이 조국적기업에 의해 장악된 종자시장에 농업이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고 농업이 종속되는 것을 막는 것은 식량주권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런 점에서 종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첫째, 종자의 현지 내 보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종자의 현지 내 보존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종자라는 것이 계속 땅에 심어져야만 환경에 적응하는 종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법에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지 내 보존을 위한 그 어떤 정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루 빨리 현지 내 보존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농민들의 자기채증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가 생산을 위한 자가채증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품종보호권자 보호를 위하여 자기채증의 제한이 강화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자기채증을 통해서만이 종자의 유지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농부권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

셋째, 농민들이 자기채증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해온 우리 고유의 종자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여야 한다. 유전자원으로서의 분석이나 안정성 등의 과학기술로 증명되어야만 하는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농지에서 직접 재배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더욱이 품종보호권에 의하여 보호품종과 유사한 품종까지도 품종보호권을 인정함으로써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종의 다양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생물체에 대한 다양한 독점을 인정하는 여타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품종보호권이나 특허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미 외국으로 넘어간 우리 종자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 종자에 대한 권리이다. 그리고 그 권리는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이다. 그런데도 앞으로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이미 엄청나게 다양한 우리의 유전자원을 잇아간 국가 및 초국적기업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히려 우리 고유의 권리를 위하여 농부권과 농촌공동체의 전통지식을 보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원광대학교 법학대원 김은진 교수 글 인용)



밀 (*Triticum aestivum*)

텃밭을 둘러보면 황량하지만, 10월 중에 밀을 뿌려두면 황량하지도 않고 식탁에 올릴만한 녹색채소가 된다. 밀은 7번 정도 잘라서 먹을 수 있다고 한다. 밀싹(밀순)에 대하여 (<http://www.woorimil.co.kr/> 인용)



도데체 밀싹이란 뭘까요? 밀싹이란 말 그대로 빵이나 밀가루의 원재료가 되는 밀의 새싹, 새순을 이야기 한답니다. 실제로 밀싹(밀순)은 꽤 오래 전부터 부산암이나 말기암 환자들에게 입소문으로 효과가 있다고 전해져서 이용되고 있었다 합니다.

최근에 와서 밀싹에 대한 연구 결과, 밀싹은 먹어도 아무런 해도 없고 영양가가 풍부해 '달걀', '치즈', '우유' 등과 같은 '완전식품'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밀싹에 들어 있는 영양분이 실로 엄청났습니다. 밀싹 1Kg이 가지는 영양소가 무려 당근, 양배추, 양파 등의 일반채소 23Kg과 동일하다 합니다. 또한, 효과가 다른 건강식품들과는 달리, 거의 즉시 나온다고 하니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밀싹(밀순)의 주요 효능

1. 밀싹은 활력제이다.

밀싹의 효능은 거의 즉사성을 띠니다. 일반적으로 밀싹은 즙을 내어 마시는데 아침 공복에 밀싹즙을 마시고 나면, 20분도 안되어 혈액으로 이동하여 바로 효과를 나타내며, 마신 사람에게 하루종일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2. 밀싹은 영양제이다.

밀싹즙은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이 마실 수 있는 '완전식품'입니다. 사람 몸의 생명작용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효소와 함께 염색소 또한 어떠한 채소보다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밀싹 1Kg은 일반아채 23Kg과 맞먹는 영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밀싹은 정화제이다.

요즘 해독주스가 이슈이죠? 그만큼 우리몸의 독소를 빼거나 해독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마셔도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몸에 있는 나쁜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헛일입니다. 모든 치료는 해독 즉, 몸안의 독소를 밖으로 빼어 내는 일에서 부터 시작입니다. 밀싹에 들어있는 풍부한 염색소는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담당하는 간과 장을 정화, 세정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여 맑은 피를 우리몸에 돌게 함으로써 몸안의 독소를 말끔하게 해준답니다.

4. 밀싹은 조혈제이다.

동물에게는 몸의 혈관에 흐르는 피가 있듯이, 식물에는 피의 역할을 하는 염색소가 있습니다. 밀싹은 70%가 염색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밀싹즙을 마시는 것은 바로 염색소, 즉 식물의 신선한 녹색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5. 밀싹은 치료제이다.

밀싹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람의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여 임파계를 청소합니다. 몸에 상처가 있거나, 관절염 등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의 임파계에 점액질이 축적됩니다. 밀싹은 이러한 점액질을 분해하여 사람의 몸으로 배출하게 함으로써 증상을 완화하고 치유하도록 도와줍니다.

밀싹(밀순) 먹는 방법

밀싹의 경우 밀싹앗에서 난 새싹의 길이가 15cm 일때 가장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소주잔 1컵 분량의 밀싹즙을 이용하여 생즙으로 다양한 음식으로 섭취 할 수 있습니다.

밀싹즙

이때 푸른 염색소가 가득한 부분만 잘라다가 갈아서 즙으로 내어 먹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섭취 방법입니다. 즙으로 내면 흡수가 빨라 효과가 좋다 합니다. 풀을 갈아 마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풀맛이 강해, 기호에 따라 여러가지 시럽이나 좋아하는 과일등을 함께 넣어 섭취하기도 합니다.

밀싹즙을 음식에 추가하여 요리

방송 사례에서 보듯이 밀싹즙을 여러가지 요리에 섞어서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에 많이들 이용합니다. 국에 넣거나, 부침개, 정단 기타 등등...

샐러드에 밀싹을 추가

샐러드에 즙을 뿌려서 먹거나 할 수 있습니다. 밀싹을 갈지 않고 그대로 먹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많은 양을 섭취하지 못하기에 그다지 추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밀싹 효소

근래 효소가 인기라서 밀싹을 효소로 먹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충분히 많은 양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버를 도정할 때 나오는 쌀겨를 준비해두었다가 눈이 오는 날 텃밭에 뿌려두면 좋다. 쌀겨는 텃밭에 사는 미생물의 좋은 먹이가 된다. 쌀겨를 뿌려두고 관찰해 보면 쌀겨가 뿌려진 눈 쪽이 먼저 녹는다. 미생물이 활동하면서 열기를 내기 때문에 먼저 녹는 것이라 생각된다. 텃밭의 미생물이 활발히 활동하면 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공급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미생물의 활동이 좋은 텃밭이 건강한 텃밭이라고 생각한다.

정원관리

Garden Maintenance



일반적인 관리 (Regular Maintenance)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에 난방장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작은 연못과 연못 안에 있는 배관이 얼지 않게 보호한다.
남아있는 뿌리채소는 모두 수확한다.
교목낙엽수와 관목 낙엽수는 식재나 이식 할 수 있다.

번식 (Propagation)

숙자삽목(올해 자란 딱딱한 가지삽목) 예)장미, 낙엽관목류

나무전정 (Pruning)

사과나무와 배나무의 밖으로 자란 가지를 자른다.
단풍나무, 자작나무, 만경류는 성탄절 전에 전정한다.





데이지 속 (*Genus Bellis*)

데이지는 유럽인들에게는 너무 흔한 잡초 겸 꽃이다. 어쩌면 잔디가 없었다면 데이지 밭으로 정원의 기본을 잡았을지도 모른다.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로 유럽과 터키의 초지에 있는 로제트를 형성하는 식물이다.

카펫형의 여러해살이로 15여 종이 속하는 속이다. 이들은 타원형에서 수저모양의 잎과 단성화이고, 긴 줄기와 흰색, 분홍색 혹은 짙은 붉은색을 띤 두화가 있다.

박공영 우리씨드그룹 화장(이학박사님)과 함께하는 정원식물의 속 속
쳐보기는 기쁜 독자들에게 식물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자 마련한 자리다. 그냥 이름 없는 꽃이 아니다. 식물이 속한 '속'이
있고 '학명'이 있고 '한국명'이 있다. 그리고 보면 한두 가지 이름이 아
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식물은 그 이름만큼이나 꽃색, 향기, 아름
다움으로 보답하기도 한다. 정원의 속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빌려 식물
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B. perennis*는 많은 재배종들로 육성되었으며 가장 일반
적으로 2년생으로 봄 화분으로 재배된다.

내한성은 매우 뛰어나 현지에서는 거의 상록의 모습을
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년생으로 취급된다. 다
만 야생의 종을 채취하거나 원시종을 심으면 겨울에
잔디밭에서 반 상록의 상태로 겨울을 난다.



배수가 잘 되고, 적절히 비옥한 토양에 햇빛이 충분
하거나 활엽수의 반그늘에서 잘 자란다. 가끔 종자
가 떨어져 잔디밭에 잡초와 같이 취급될 수 있으
므로 종자가 떨어져 발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꽃이 시
들면 잘라낸다. 초겨울 혹은 이른 봄 영하의 날씨에
꽃을 피울 모목들은 비닐 한 겹 정도의 냉상에서 기
르고 물을 적당히 주고, 4~7℃를 유지한다.

증식은 초여름에 파종하여 가을에 피우거나 초봄
기온이 10~13℃일 때 뿌린다. 꽃이 핀 다음이나 초
봄에 분주를 할 수도 있다.

최근에 다양한 품종의 원예종들이 개발되면서 화색
도 다양해 지고 꽃도 대형화 돼 매우 화려한 품종이
선호되고 있다.

매자나무 속(*Genus Berberis*)

매자나무 속은 우리나라에서도 특산식물(*Berberis koreana*) 있는 아주 다양한 종을 가지는 관목이다. 상록성이나 낙엽성 관목으로 450여 종이 속한 속으로 북반구, 북아프리카와 열대 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에 있으며 신약지대의 암석으로 된 토양을 선호한다. 잎은 선형에서 폭넓게 달걀모양 혹은 거꾸로 세운 달걀모양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가지모양의 톱니형 잎들은 줄기의 가지모양 돌기의 잎맥에서 3개의 그룹으로 형성되어 나오며 오래되고 잎이 없는 줄기에 잔존한다. *Berberis*는 잎을 주로 관상하지만 노란색에서 짙은 오렌지 색인 종모양의 꽃과 색이 다양한 가을 열매를 보기 위해 재배된다. 이들은 돌로 된 정원에 적합한 키가 작은 종과 화단의 독립 관목이나 울타리로써 효율적인 커다란 관목까지 있다. 모든 부분은 먹었을 경우 약한 복통이 있고 유액은 피부 염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최근에 잎이 아름다운 품종들이 많이 개발 되어 앞으로 그 쓰임새가 매우 늘어날 식물이다.

서리에 대한 내한성이 있다.

재배는 밝은 태양아래나 부분적으로 그늘이 진 대체로 배수가 잘 되는 모든 토양에서 기른다. 열매와 가을철 단풍은 양지에서 더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전정은 개화 후 가장자리를 다듬어 준다.

국내에는 교목과 관목은 어느 정도 우리환경에 맞도록 발전했는데 아직 관목은 회양목과 철쭉 등의 한정된 관목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다양한 습성의 매자나무는 이런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이용가능하다 특히 적자색과 무늬가 좋은 종 그리고 잎이 황금색인 종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겨울 가든의 풍성함을 더욱 연출가능하고 피복지와 울타리 경관도 발전할 것이다.

증식은 초봄에 모판에 파종을 한다. 많은 종들이 정원에서 자유롭게 교배되므로, 다양한 종류가 섞여진 정원에서 가끔 교배된 이종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여름에 연한 줄기를 꺾어서이면 뿌리를 잘 내린다. 이른 봄 전년도에 자란 가지를 삽목해도 된다.

그러나 현재 좋은 품종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양번식에 의한 즉, 삽목을 하거나 포기 나누기 혹은 조직배양에 의해 증식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품종의 특성이 명확하고 관리가 잘 되는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 방법이다.

해충 및 질병으로 진딧물과 흰가루 병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돌부채 속(*Genus Bergenia*)

돌부채꽃은 상록성 다년생 식물의 6~8종의 속으로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초지, 돌이 있는 황무지, 비가 잦은 삼림지에 있다. 이들은 튼튼하고 두꺼운 지하경과 교대로 잎이 난 특이한 로제트와 단순하며, 물결 모양 혹은 톱니형의 달걀모양 혹은 타원형에서 난형의 큰 잎으로 부채와 같은 모양을 한다. 잎 표면이 광택이 나는 데 겨울에 적자색의 착색이 된다.

꽃은 대개 1.5~2.5cm의 지름이며, 붉거나 보라색의 꽃대를 길게 빼고는 주로 분홍빛의 꽃을 봄에 피운다.

서리에 대한 내한성이 있고 겨울 정원용으로도 좋으나 너무 바람이 많은 곳에서는 잎이 마르거나 동해를 받을 수 있다. 분경용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재배는 부식토가 풍부하고, 촉촉한 곳이 좋은데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밝은 태양아래나 그늘이 조금 있는 곳에 좋다. 대부분 극도의 열과 가뭄을 좋아하지 않지만 질이 좋지 않는 토양에 대해서도 약간의 내성이 있다. 가을에는 뿌리덮개로 덮어 뿌리줄기부분을 감싸는 것이 좋다. 서리는 이른 개화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몇 종의 잎들은 겨울에 뿌리만 남기고 잎이 마른다.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하면 겨울에도 석축 혹은 숲속의 이끼진 바위 등과도 잘 어울리므로 겨울용과 석축용으로 활용가능하다.

가을이나 봄에 3~5년마다 상태가 나빠지는 덩불(clump)을 분리하거나 그들로부터 지하경을 분주해 뿌리 내린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로제트 잎이 붙은 어린 지하경 부분을 개화 후 혹은 가을에 넓은 모래 혹은 상토에 심어 뿌리를 내린 후 이용한다.

민달팽이, 달팽이 모충에 의한 피해가 있다. 두꺼운 줄기에 바구미에 의한 피해와 근부병에 의한 썩음 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곰팡이가 원인균인 반점 병이 잎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Rooftop, Secret Garden

옥탑, 비밀의 정원

정원사 최영모
글, 사진 / 우정아



도심 속 20여평의 비밀의 공간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최영모씨의 정원은 20여 평(66㎡)이 다세대 주택 옥상에 조그만 옥탑방과 함께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비밀스럽게 조성되어 있다. 정원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은 9년 전부터라고 한다. 꽃의 이름도 알지 못하면서 예쁘다는 생각만으로 식물을 사고, 그 식물을 키워가면서 많은 것을 찾아보고 알게 되고, 식물의 외관에 반해서 시작한 식물 키우기가 지금은 살아가는 기쁨으로 한자리 하게 될 정도로 중요하게 되었다 한다.



식물의 생장에 기초한 정원 공간의 디자인연출

정원은 인동초, 장미, 백문동, 담쟁이, 초롱꽃, 화초포도, 패추니아, 패랭이, 물토란, 비비추, 수선화, 할미꽃, 노루오줌, 비올라, 조팝, 까마중, 남천, 매발톱 등 주로 초화 위주의 식재로 내부 건물의 공간에서도 정원을 즐기도록 시선을 낮추어 울타리와 옥탑방을 따라 조성되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식물의 생장을 우선하는 디자인으로 하나씩 꾸며나가면 자연이 살아쉽쥬는, 정원의 식물이 돋보이는 정원의 디자인으로 흘러가는 것을 자신도 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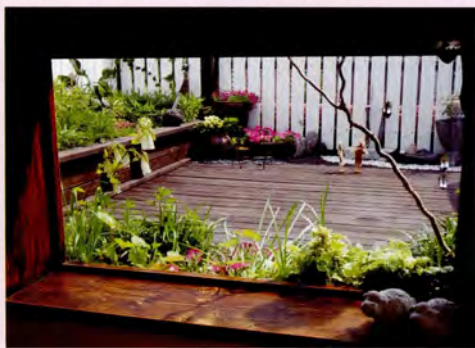
옥상정원의 기초공사와 안전성 고려

버려진 공간을 자기만의 공간으로 바꾸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간단한 채소를 기위 먹던 장소에 하나 둘 화분이 차지하게 되고, 화분들의 다양한 모양과 색이 못마땅해서 모아 심기를 하다가 시작한 정원 조성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부족한 토심 때문에 식물들이 고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주인장은 정원을 처음부터 다시 계획하게 되었다고 한다. 식물의 식재를 위해 옥상의 바닥 면을 예폭시로 여러 번 도장해서 방수를 하고, 식물의 생장에 맞는 토심을 만들기 위해 바닥 면을 소나무 방부목을 깔아, 바닥 면에서 올라오게 함으로 토양의 공간을 밑으로 10cm 이상 확보하고 플랜트 박스를 제작해 나머지 토심을 확보했다. 또한 옥상이라는 다소 위험한 공간의 특성상 울타리를 1m이상 둘러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택 밀집 지역에서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그네와 테이블을 놓아 앉아



정원의 식재를 디자인 하며 창가나 건물 내부에서 시선이 가는 곳을 연장을 두어 중심을 잡아 집안 내부에서도 정원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나누도록 식재의 색상과 높낮이에도 신경을 쓴다면 우리나라 정통정원의 창과 문을 통하여 공간의 산수를 산수화처럼 화폭으로 담아내는 정원공간 연출은 디자인이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창의적 공간 연출 장소이다. 작은 공간 일수록 건물의 내부와 외부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 연출을 통일성과 대각선의 교점을 각 코너에서 이어보면 공간의 연출이 보다 쉬워지며 전체 공간의 연결과 조화의 창의성도 발견하며 자기만의 독창적인 정원공간의 분위기로 중심점을 찾을 수가 있다.

작은 공간에서 더 많은 창의력과 공간 활용도의 창작의 시간을 갖는 매력을 정원에서 느끼며, 식물이 성장한 후 자연스럽게 주는 새로운 환경의 연출은 점점 정원에 빠지도록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서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가로등을 설치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시골에 사는 친지들이 기증한 토속적인 물건들을 공간에 맞게 재배치해 청경물과 오보제로 사용함으로써 토속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연출되었다. 옥탑방 벽 두 면을 유리창을 내어서 정원이 한 눈에 들어오게 구성하여 정원의 감상이 용이하게 한 것도 주인장의 감각이 남다른 이유일 수 있다.



나만의 공간은 관리가 우선

정원은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장소라 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잡초를 제거하고, 식물에게 안부를 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해지기전에 올라와 지는 꽃을 아쉬워하며 작별을 고하는 것으로 일몰을 맞이 한다. 정원의 관리는 한약 찌꺼기를 통 안에 넣고 흙과 함께 1년 이상 부식시킨 것으로 비료를 대신하고, 직접 제조한 EM을 목초액과 섞어 물에 희석한 것으로 병해충을 방제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식재를 일일이 구입하여 식재했는데, 지금은 품종이 많아져서 분주를 하거나 삼목을 해서 번식시키고 있고, 주변에서 버려지는 식물들을 입양해서 개체 수를 늘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도 일년초들은 계절을 느끼기 위해 계절마다 사다가 식재 한다고 한다.





정원의 색채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다.

서운은 정말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색 콘크리트 벽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회색이라는 무색을 보면서 우리의 감각기관들이 점점 무뎌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반면 식물은 많은 색으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감상에 젖게 합니다. 작은 풀 한 포기 생로병사가 보여주는 의미가 나에겐 삶의 기쁨과 슬픔을 잊지 않게 하는 큰 스승입니다.



초롱꽃 *Campanula punctata*



재비꽃 *viola cornuta*



패랭이 *Dianthus Rosa*



장미영굴 *Rosa banksiae* CV.



매발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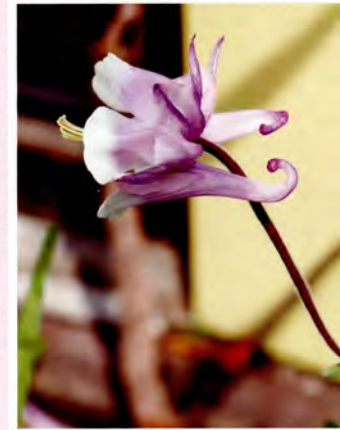
하늘국화 *Anacyclus pyrethrum depressus*



털마리 *Pulsatia koreana* Nakai



섬바귀 *Ixeris dentate* Nakai



매발톱 *Aquilegia buergariana* var. *oxysepala*



털기 (한색꽃 그림) 페추니아 *Pentunia Hybrida* Hort. Ex Vilm

들꽃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들꽃세상의 정운선대표

Green finger, Green thumb 정원사에게 최고의 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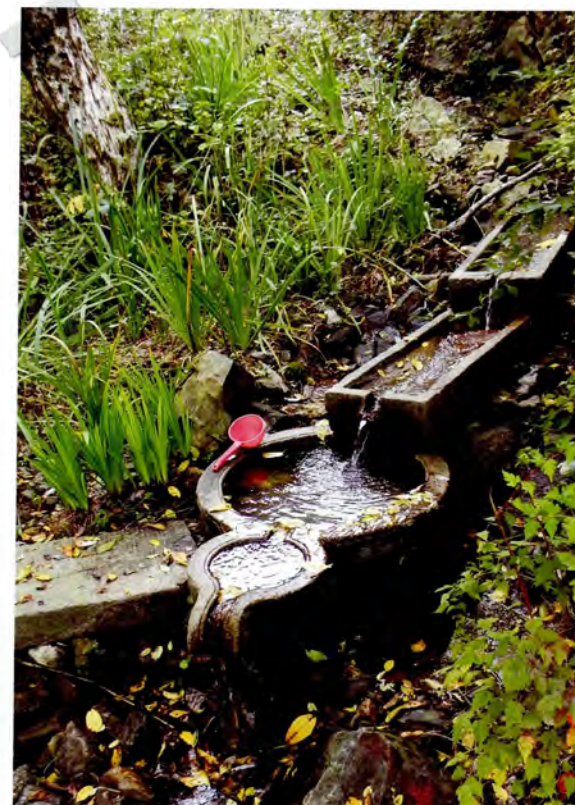
실내정원원에서 죽어가는 도시의 친구들을 차에 집어지고와 물을 주고, 정원사의 손길이 닿으면 살아 움직이는 의미를 부여하는 식물군으로 함께한다. 기쁨과 열정이 시들여가는 식물도 건강하게 만드는 green finger 이다.

들꽃 세상에는 모든 자연 환경을 갖춘곳,
특히 계곡사이로 흐르는 물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구선 대표는 아마도
김춘수님의 꽃을 읊으리라.

꽃

김 춘 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빛이 되고 싶다.



꽃이 마음에 주인으로 살아가는 정원사.

흔치않는 삶을 설계한 이는 세상의 모든 것에 마음도 내려놓고 자연과의 교제를 위해 바쁜 일상적 삶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농업, 텃밭, 정원을 돌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원예를 공부하며 순수 정원사로 약 30여년간의 여가시간을 경기도 가평리에 4,000여 평의 터를 잡고 농장에서 정원으로 정원 문화로의 정원공간 연출을 이이 마을을 정원의 명소로 꾸미고 싶은 꿈을 실천하는 정원사를 방문하였다.

정구선 대표와 가든인 잡지와 만남은 2014년 8월 우리꽃 아카데미 조경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리꽃 농원의 교육프로그램과의 인연으로 정구선 대표의 들꽃세상을 1일 교육장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2014년 우리꽃 아카데미 5기교육생의 방문기념

정원의 공간을 연출 하기 위해 기본 요소를 찾으며 정원의 터를 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모든 것을 갖추기는 그리 쉽지 않다. 정원을 연출하려는 기획에는 늘 자연 그대로의 기본 요소는 흐르는 물줄기, 주변 자연환경, 식물의 조건이 되는 토양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한다.

가평 설악리의 들꽃세상은 모든 자연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곳으로 둘러 쌓여 있으며, 침터의 자리는 물도 흐르며, 긴 계곡에서 흐르는 물줄기에 자연의 소리 정원까지도 연출을 하고 있다.

4,000여평의 농원이란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숲 속과 곳곳마다 들꽃과 나물재배도 양이 대단했으며, 약 30년 이상을 꽃을 사모하며 꾸준히 틈 만나만 자연을 가꾸고, 번식과 파종과 연구까지도 하는 정원사.

전문가들도 함께 시간을 나누며 유명한 지인들이 늘 이야기를 피우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 열정의 정원사.

주변 환경을 "관광 명소로 키우고 싶다" 는 꿈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

식물의 선정에도 남다른 안목과 끈질긴 인내와 열정으로 23번의 시도에는 물러섬도 없다. 원산지의 근본도 은근과 끈기를 보이며 들꽃세상을 꿈꾸는 정원사.

많은 사회적 업적에서도 정구선 대표에게는 아마도 가장 으뜸으로 하는 일이 정원사의 업무인듯 하다. 사업을 하며 넓은 공간을 손수 풀매기와 씨앗을 뿌려 파종도 하며, 잔디에는 잡초하나 없다. 산속을 거닐며 어느 곳 하나 정원사의 손이 안 닿은곳이 없다.

오랜 식물과의 교류로 식물의 분류에도 스스로 귀뚱과 일본과 해외 어느 곳을 방문 하든지 그녀의 민첩함과 날카로운 예지는 늘 식물이 어떻게 변화하며 나의 정원에서는 나만의 방법으로 식물을 연구하며 식재를 하여 더욱이로 *alpine garden* 연출한 공간도 전문가의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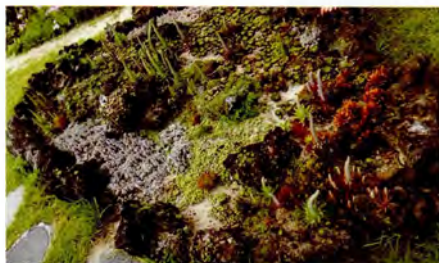
다육이 정원

다육이, *Sedum* 세덤 이라 통칭하며 , 우리나라 동대문 스타디움의 지붕에 옥상 정원처럼 8만주 이상이 식재한 식물이다. 어려중이고 내한성이 강한 종류도 많아 요즈음 겨울 정원의 장식용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세덤의 이름과 종류로는 다음과 같다.

흰무늬세덤 *Sedum spathulifolium*
 안젤리나세덤 *Sedum rupestre Angelina*
 말뚝비름 *Sedum bulbiferum Makino*
 알봉세덤 *Sedum album*
 흰꽃비위재송화 *Sedum polystichoides Hemsley*
 단추세덤 *Sedum tetractinum Coral Reef*
 송엽국 *Lampranthus spectabilis*
 종발물세덤 *Sedum diffusum*
 데로스페르미 *Delosperma nubigenum*
 멕시코세덤 *Sedum mexicanum*
 국화세덤 *Sedum glaucophyllum*
 명채송화 *Sedum oryzifolium Makino*
 모난데스 *Monanthes polyphylla*
 별솔세덤 *Sedum hispanicum*
 일본큐라리스 *Crassula orbicularis*
 다람쥐꼬리 세덤 *Sedum sexangulare Six-sided Stonecrop*

경사진 높고 긴 담을 덩굴식물로 장식하는 정원사의 기지는 식물을 적재적소에 알고 식재하는 훌륭한 정원사이고, 덩굴식물의 식재로 시멘트로





이질감을 주던 벽면을 친근하게 자연으로 닦아가는 공간 연출과 식재의 활용도가 높은 곳이다. 그는 강원도와 경기도 가평에 각각 7600㎡(2300평)와 5600㎡(1700평)짜리 야생화 농장을 가꾸고 있다. 어린시절 장래 희망에 '원예가'를 적을 만큼



수종의 클리메티스와 덩굴식물

채소정원과 과실정원



유기농 채소를 거의 재배하고 있는 채소 정원



고추밭



토마토 밭의 가지 정리와 묶어주기로 10월까지도 계속 열매가 열린다.



덩굴 공으로 아치형 터널을 만들어 관리와 병충해까지도 돌보며 정원의 디자인도 살렸다



유기농 채소로 키우고 있다



모가 나무 Pseudocarya sinensis 모가열매가 탕스럽게 익어간다 모가나무는 5월 중순경 꽃을 피운다.



대추나무도 유기농으로 키우며 크기와 맛이 일품



부추



꽃을 좋아했고, '보따리상'을 하느라 해외로 다닐 때는 휴지에 쓴 꽃씨를 속옷 속에 숨겨 오기도 했다. 인터넷에 '정구선 들꽃세상'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2년 전부터는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조경부문 자문도 맡고 있다.

"지금 제가 키우는 농장에 보호종만 20여 종이 넘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요. 취미로 시작했지만 잘하면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의 최종 목표는 일본의 나오히메(直島) 같은 '작품'을 만든 것이다. 일본 가가와현에 있는 섬인 나오히메는 한때 제련소와 폐기물 처리장이 있었지만, 기업인과 예술인이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갖추고 조경을 해 지금은 호텔 예약에만 6개월씩 걸리는 세계적인 관광지 됐다.

그녀의 건강한 모습과 정원사의 순수함이 '들꽃세상'을 전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2014년 12월을 보내며 그녀에게 갈채의 눈빛을 날리고 싶다.

너는 나에게 / 나는 너에게 / 잊혀지지 않는 / 하나의 눈빛이 되고 싶다.



WALLED GARDEN(포근한 담)의 완공기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순천만 정원에서 제1회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열렸다.

지난 봄에 열린 제1회 코리아 가든쇼와는 달리 공통의 주제 없이 진행되어 자유로이 컨셉을 정해 진행하였다. 1차 심사를 거친 10명의 작가와 34팀의 학생부, 34팀의 일반부의 정원이 전시되었다. 한평정원 페스티벌이라는 타이틀로 행사가 진행되었지만 작가부문에는 한 평(3.3㎡)보다 큰 50㎡ (5m×10m)의 공간이 주어졌다.

똑같이 주어진 면적이지만 작가 개인의 컨셉과 특징이 머무러져 전혀 다른 느낌의 훌륭한 정원 10작품이 전시되었다.



글, 사진 최지현 가든디자이너
가든스튜디오 알리움 대표

Writtle College, University of Essex MA garden design.

1단계



[작가에게 주어진 5m x 10m의 부지]

이번 전시는 자유 주제로 진행 된 만큼 컨셉을 잡는데 더욱 신중을 기했다. 순천의 이미지를 떠올렸고, 순천 시민 및 관람객들이 공감하고 즐거워할 컨셉을 고민하다 순천 낙안면의 낙안읍성을 떠올렸다. 성곽 안에서 평안하고 포근한 삶을 정원이라는 키워드에 대입하고 싶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읍성의 이미지 보다는 엄마 품과 같이 포근한 느낌을 생각했다.

월드가든(Walled garden)이라는 타이틀을 잡고 낙안읍성이라는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요소를 이색적이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전통적인 성곽의 이미지를 정원의 담(wall)을 곡선 형태로 세워 포근한 느낌을 더했다. 그 중심에는 벤치를 두어 포근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 벤치에 앉아 맞은편 담 아래의 잘 가꿔진 초화류를 즐길 수 있도록 배치했다. 정원디자인에서 중요한 또 다른 점은 식재와 컨셉과의 조화라고 생각한다.

정원은 시설물뿐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메인 요소가 식물이기 때문이다. 이 신념을 바탕으로 담 안쪽의 식재 디자인은 화사하고 아름다운 초화류가 주를 이어 즐길 거리를 만들었다. 담 외부에는 자연스러움과 와일드 한 느낌을 살려 줄 그라스(grass)를 주로 심어 눈으로 보는 질감과 바람에 흔들리는 움직임에 즐기도록 했다.

2단계



[월드가든(Walled garden)의 구상 이미지]

3단계



준비된 컨셉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시공에 착수했으나 갑작스레 퍼붓는 비에 일정이 늦어져 추석연휴를 통째로 반납하며 진행하였다.

처음으로 진행한 것은 담(wall)이 되어줄 블록과 바닥포장재, 식재의 반입이 있었다. 트럭이 좁은 공간까지 들어올 수 없기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하고 해당 부지로 옮겼다. 반입된 식재는 비로 늦춰진 일정 때문에 반입 후 바로 식재공사가 불가능하여 그늘 막을 만들어 보호했다.



[차재 반입 및 운반]



[뜨거운 햇빛에 꽃잎이 시들고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늘막을 설치했다.]

디자인 레이아웃을 사이트에 표시하고 담을 쌓는 작업을 진행했다.

지표면의 수평을 맞추고 블록을 쌓고 또 수평을 체크해나갔다. 무거운 돌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담이 쌓이도록 신경 쓰였다

4단계



[표시에 둔 디자인을 따라 블록을 배치했다.]



[수평자로 수평을 맞춰가며 블록을 쌓았다.]

5단계



담을 쌓은 후에는 컴팩터를 이용하여 지면을 다져 바닥포장을 준비했다. 평평하게 다져진 땅에 바닥포장용 블록을 놓고, 그 위를 컴팩터로 다시 다져주었다. 블록 사이의 공간은 규사(고운 모래)로 채워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컴팩터를 이용해 평평하게 다져진 땅에 바닥 포장을 하고있다.]

6단계



[컴팩터를 이용해 평평하게 다져진 땅에 바닥 포장을 하고있다.]



[담 안쪽의 화려한 식재디자인]



[자연스러움이 강조된 그라스 위주의 식재디자인(담 외부)]

일반정원이 아닌 주어진 전시기간에 최상의 상태를 보여줘야 하는 정원이기 때문에 식재는 밀식하여 진행하였다. 식재까지 완성 후 바크(나무껍질)로 멀칭마감을 해주고 정원 시공을 마무리 지었다. 정원디자인을 할 때 완성된 정원의 모습을 상상하며 디자인을 한다. 스케치로만 존재하던 정원을 실제로 완성하면 그 보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과 보람으로 다가온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맨땅을 가장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정원디자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



[완성된 정원]



봄이오면 도시를 꽃향기로 가득하게 만드는 '고양국제꽃박람회'

우리나라도 이제는 개발중심의 도시정책에서 벗어나 도시에 정원과 공원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 덮인 도시를 토양이 숨쉬고, 나비와 벌이 날아다니는 환경으로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면서 도시 공간에 꽃과 나무가 많아 진다는 것은 도시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녹색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매년 봄이 찾아오면 도시를 꽃향기로 가득하게 만드는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통해 정원이 주는 즐거움과 문화를 살펴보자.



고양국제꽃박람회 간판



글/사진 김 홍 렬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연구소(주) 건축/조경/생태복원기사,
우리공예길라잡이 <http://blog.naver.com/hongdoiry>



고양국제꽃박람회 마스코트

사라진 마당문화, 다시 일어나고 있는 정원문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모든 집에는 마당을 가지고 있어 곳곳에 꽃을 심어 가꾸어 즐겼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전통정원 해체는 물론이고 일본식 정원이 보급되었고 아직도 그 잔재는 남아있다.

1970년대 산업화를 거쳐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면서 주거문화가 획일화되었다. 이러면서 주거공간에서 마당은 사라지고, 작은 화단도 가꿀 여력과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시적 차원에서의 정원 문화가 싹 트면서 조금씩 도시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시 여가 생활이 녹색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 국내 최초로 열린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해가 갈수록 체계가 잡히고 수만 명이 찾는 박람회로 성장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또 2010년, 2012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2013년 순천정원박람회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년 사이 정원을 접할 수 있는 이벤트와 기회가 늘어나면서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4 고양국제꽃박람회

꽃이 만발하는 봄이 되면 경기도 고양시 호수공원 일대는 꽃향기로 가득하게 된다. 1997년 고양국제꽃박람회로 시작된 이 행사는 국내 최초의 꽃박람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원문화의 메카인 영국 첼시플라워쇼를 롤모델(role model)로 삼은 고양국제꽃박람회장은 일산호수공원 주변의 30만평에 달하는 곳에 펼쳐진다.

올해 열린 '2014고양국제꽃박람회'는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100만 시민이 창조하는 600년 고양의 신한류 꽃축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국내 200개 업체, 해외 35개국 120개 업체가 참가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박람회 기간 동안 국내·외 학술세미나가 진행되어 시민, 학생, 학술인, 언론인 등 다양한 계층이 방문하여 큰 관심을 끈 행사였다. 월드 플라워 파빌리온 I (World Flower Pavilion I)에서는 국내 신품종 및 수출화훼, 화훼관련 기자재,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우리꽃 정원'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월드 플라워 파빌리온 II (World Flower Pavilion II)에는 화훼도서, 화분, 화훼기능상품, 정원 및 인테리어 관련 소품을 포함한 홍보 부스가 마련되어 꽃박람회를 찾은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다.





전국 9개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하여 출품한 접목선인장, 장미, 갈라 등 170여 신품종 화훼 전시와 고양시에서 세계로 수출하는 20품종 50여종 화훼류가 전시되는 '고양시 수출화훼 전시관'이 마련되어 대한민국 화훼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산림청에서 소개하고 있었던 '우리꽃 이야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제1회 정원문화심포지엄 '매혹의 공간, 정원을 디자인하다'

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 동안 생활 속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정원 문화와 새로운 정원만들기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제1회 정원 문화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참여한 9명을 통해 정원 디자인을 하며 경험했던 에피소드, 열악한 정원업계 환경을 극복하며 조성했던 노하우(knowhow)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작품에서 사용했던 새로운 재료와 식생, 소극적이었던 정원디자인에서부터 벗어나 주민들과 소통하는 디자인으로 활용했던 것이 인상적으로 남았다. 학생들과 학계에 관련된 사람들만 참여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다음부터는 조금 더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

정원 심포지움



지난 11월호에서는 2013년 순천만에서 6개월간 펼쳐진 순천정원박람회를 소개했고, 이번 호에서는 올해 봄 경기도 고양시에 펼쳐진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소개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이번 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식, 개막축하 불꽃쇼를 비롯한 공식행사와 공연, 이벤트는 모두 취소하고 전시와 비즈니스 중심의 박람회로 개최되었다. 또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개최되지 못해 더 많은 정원을 즐겨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도시에서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생태적 건강성 회복, 커뮤니티 활성화, 경제와 문화적 가치 상승이 도시 공간 속에 몇 개의 건축물을 더 짓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음말 도시정원문화 보급소 '정원·꽃박람회'

정원을 쉽게 가꾸고 관리하는 교육이 더욱 더 많이 보급되고, 일상에서 정원을 자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잃어버렸던 한국인의 정원 문화를 다시 살려나가기 위한 것이다.

다음 호부터는 전통정원을 함께 살펴 보면서 한국적 정원문화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다.





독일의 묘원을 돌아보면서

인류가 살아오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살다가 죽은 후에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63세로 생을 마감한 Klaus씨의 무덤으로 화강석으로 무덤을 덮고 아기초사 조각상을 배치하고 바구니에는 만데빌라를 식재하여 놓고 땅에는 삼각필레아와 로벨리아, 피라칸타를 식재하여 장식한 묘원



묘지의 역사를 보면 고인돌을 비롯하여 거대한 이집트의 피라미트, 로마교황청의 석관장이나 타지마할궁전과 같이 건축물의 왕비 무덤, 한국의 조선왕릉묘 같이 어마 어마한 묘지 문화가 위엄과 장엄함, 위압감을 주는 묘지도 있지만 소박하고 아담하며 엄숙하고 깔끔하면서도 화려한 감을 주는 묘지도 있다. 여러 나라를 다녀 보면서 인상적인 묘지 문화를 소개 한다면 독일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윤 평 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65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 Johann Schreiber씨의 무덤과 여러무덤들이 각양각색의 묘비와 장미와 철쭉왕 국화, 솔리다고, 꽃베고니아, 제라니움등을 식재하여 장식한 묘원

무덤보험의 묘지 관리시스템

독일은 죽은 후에도 묘지를 관리해줄 후손이 없어도 묘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결은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무덤보험덕분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장례식장만을 관리하는 마이스터 제도가 있어 일단보험에 든 사람이 죽으면 사망 신고와 함께 은행으로부터 장례식을 치를 업체를 선정하여 장례가 치러지고 화훼장식 마이스터가 책임지고 관리 한다고 한다. 더욱 놀란 것은 영원히 한결 같이 보전 관리가 된다는 것이다. 은행이나 마이스터 모두가 양심적으로 관리해준다는 것이다. 얼마나 철저히 관리 해주느냐 하는 것은 묘지를 보면 놀랄 것이다.

독일은 꽃박람회 때에 묘지 장식 컨테스트가 꽃 출현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음을 보더라도 짐작할 만하다.



68세의 인생을 마감한 Rebelei의 가족 석판무덤



2개의 비석과 3개의 사람주목, 트리안과 좀무늬시칠, 서양화양목, 만데빌라, 홍자단을 식재하여 장식한 묘원



68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 Peter Heinz Kuhn씨의 무덤으로 한꽃무패아와 로벨리아를 식재하여 장식한 묘원



69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 Hans-Dieter Murken씨의 무덤으로 화강석으로 덮고 꽃베고니아와 아질레아, 케네이션으로 장식한 묘원



73세로 생을 마감한 Friedrich씨의 묘지로 까만 오색의 묘비와 화강석으로 띠를 두르고 제라늄과 로벨리아, 페튜니아, 산비탈리아, 화백과 향나무, 장미, 우크시아를 식재하여 장식한 묘원



83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 Claudia Weller씨의 가족묘원으로 만데빌라와 장미, 고데티아를 식재하고 철와용으로 국화와 글라디올러스, 에키노프스를 꽃이 장식한 묘원



2014년 독일의 기센꽃박람회에 출품된 묘원 장식



82세의 생을 마감한 Otto Wolf씨의 가족묘원으로 화단을 조성한 공원묘원

묘지 디자인

묘지 디자인도 넓이가 가로 1.5m, 세로가 2.4m 정도 크기로부터 그 이상 크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각양각색의 관상식물과 화훼식물이 단순하게 또는 복잡하게 식재 되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문화에 비하면 신기하고 신비할 뿐이다. 그래서 독일의 묘지만을 여러 날을 다니면서 관찰해 보아도 꽤 흥미가 있을 정도였다.

식물의 배치를 비롯하여 비석의 형태와 재질, 색채, 글씨 소재와 배치에 있어서 모두가 예술이다. 식물이 식재되기에 식물에 물을 주기 위해 수도시설도 빼놓지 않고 군데군데 있다.

꽃색도 붉은색을 비롯하여 분홍색, 노랑색, 흰색, 보라색, 청색 등 예쁘다고 생각하면 모두 이용되고 있다. 어떤 곳은 아름다운 조각물도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014년 독일의 기센꽃박람회에 출품된 묘원 장식



2014년 독일의 기센꽃박람회에 출품된 묘원 장식된 샘플



2014년 독일의 기센꽃박람회에 출품된 묘원 장식된 샘플



2014년 독일의 기센꽃박람회에 출품된 묘원 장식된 샘플



2014년 독일의 기센꽃박람회에 출품된 묘원 장식된 샘플

Funeral Exhibitions & Trade fairs in Giessen, Hesse, Germany

Funeral Exhibitions and Trade Fairs - Trade Fairs of Funeral November 2014

선진국의 경우 장례문화가 발달하여 원예산업분야로 확장되며, 독일 5, 폴란드, 2 프랑스 1 등등 7개국12개 도시에 장례전시회와 무역박람회가 개최된다.

정원도구 특가 세일

‘베란다 텃밭, 옥상텃밭,
정원관리에 활용하는 도구 총집합!’

20%
~최대 30%할인



손도구 앞치마 7종세트

22,500
18,000원

정원도구세트의 최강재 앞치마에 요긴한 정원도구들을 담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 '스테인레스스 털 블레이드 하드우드 손잡이', 모종삽, 갈퀴2종, 파종기, 장갑(PVC코팅 그림), 앞치마 포함

손도구 가방 7종세트

18,000
12,000원

파종하기 모종 옮겨심기 결순따기 가지고르기 등 텃밭관리에 필요한 도구를 가방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정원 손도구 가방 세트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 '크롬도금 스틸 블레이드, 우드손잡이' 분무기, 전지가위, 모종삽2종, 갈퀴, 끈(30미터), 가방 포함



손도구 앞치마 4종세트

15,000
10,000원

기본도구만 알차게 담았다! 가든도구 5종세트입니다.

구성: 저탄소 강스틸블레이드, 크롬도금, 우드손잡이(도구 길이 약 25.5cm), 갈퀴2종, 모종삽 2종



어린이 앞치마 4종세트

11,250
7,000원

어린이 텃밭 정원에 필수품! 어린이가 텃밭 활동에 필요한 정원 손도구들을 귀여운 앞치마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구성: 무독성 코팅 스틸블레이드/우드손잡이, 삽2종, 갈퀴, 앞치마 포함



2만원 이상 구매시 재배백 사은품 증정!(샐러드재배백/ 당근재배백 중 랜덤 발송)

- 어디거나 간편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텃밭 상자형 플라스틱 백입니다.

blog.naver.com/gardenjoa777 가든조아:031-712-7009



갯물이화분
Sedum Pot 5,000원 / 30분



공룡알화분 Dinosaur Egg Pot 15,000원 / 1시간



파종과 상목
Seeding & Cutting 5,000원 / 30분



씨앗미술
Seed Art 7,000원 / 1시간



샐러드박스
Salad Box 7,000원 / 1시간



가족화분 Family Pot 30,000원 / 1시간



구근화분
Bulb Pot 25,000원
1시간

가든조아
Seed the Dream, Unroll it.

가든조아의 정원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개인/단체에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중장년/ 노인/ 가족)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됩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단체 참여 가능(가격 문의) * 배송가능

* 체험안내 문의 : 블로그(http://blog.naver.com/gardenjoa777), 전화문의

가든조아:031-712-7009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12월의 정원

정원에서는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 드디어 겨울이다.

겨울에도 정원에 눈이 너무 많이 쌓이지는 않을까 땅이 얼어버려 식물의 뿌리가 상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며 지나가다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1년에 한번 눈이 내린 추운 겨울에 정원이 화려하게 변할 수 있는 날이 있다. 바로 크리스마스이다. 보통 겨울이 되면 정원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11월 말부터 영국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정원이 반짝반짝 빛난다. 산타 혹은 눈사람 모양의 조형물부터 나무에 걸려진 것까지 다양하다. 특히 겨울에 별다른 열매를 맺지는 못하지만 화려하고 볼거리는 많은 크리스마스 장식에 배움을 수 있다. 동전을 산책하며 집 주변을 산책하며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는지 귀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글 사진 서수현 가든디자이너

크리스마스가 다가 올수록 정원에서는 좀더 창의적인 일이 벌어진다. 심고 기르지만 했던 식물들을 이용해서 집 안에 어떤 장식을 할 수 있을 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솔방울과 호랑 가시나무 잎을 이용하여 리스(왕관모양처럼 둥근 모양에 꽃과 잎 혹은 열매로 장식해서 벽에 거는 장식품)를 만들어 현관 앞이나 거실 벽에 걸거나 크기를 작게 만들어 크리스마스트리에 걸어도 되고 혹은 양초를 가운데 넣어 장식해도 좋다. 손재주가 없으신 분들은 포인세티아 화분을 사서 솔방울과 함께 선물바구니에 넣어두어도 쉽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다. 장식을 위한 정원 소재 이용이 마무리 될 즈음, 마지막 정원체크 리스트도 잊지 말자.



체크리스트

1. 정원에 있는 호스를 버블랩(일명 복박)이 비닐로 감싸주어 수도가 얼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2. 새로운 겨울 혹은 봄 화단을 만들기 위한 공간에 흙을 상으로 뒤집어 준다.
 3. 각종 소품들(터발용 목재화단등)이나 연못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 등의 일들을 미리 해 놓는다.
 4. 낙엽 등의 식물 잔해들을 깨끗하게 치워 벌레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거해 준다.
 5. 비어있는 땅이 있으면 삼지창모양의 삽으로 흙을 뒤집어 준다. 혹시 남아 있을 수 있는 병해충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6. 연못이 있는 경우 물이 얼기 전에 고무공을 넣어두어 표면이 얼어도 그 부분만은 얼지 않아 낙엽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공간 혹은 물고기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만약 공을 넣는 것을 잊었다면 달곤 후라이팬을 잠깐 동안 올려놓아 구멍을 만들어 주면 된다.
- 괜히 해머로 깎다가거나 하면 물고기들이 기절해 버릴 지 모른다.

영국에서 만약 정원사가 모든 도구를 내려놓고 쉴 수 있는 날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마도 크리스마스날이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데이트를 하고 친구들과 파티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영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무조건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엔 가족과 함께한다. 이브날엔 모두 모여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선물을 주는 날이다. 크리스마스 날은 전날 실컷 놀았던 고단한 몸을 쉬게 하는 날이다. 모두가 쉬는 날이어서 그렇지 이때만큼은 나라 전체가 동화 속에 나 오르는 엄청난 도시가 된 듯하다. 그래서 이때만큼은 정원사도 쉬어간다.





한적한 크리스마스 오후엔 할 일이 없어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음식을 해먹던 때가 생각난다.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여러 가지 열매들을 넣어 만든 크리스마스 푸딩이라는 케이크를 먹는데 한국인 입맛에는 썩 맛있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 친구들끼리 새로운 요리를 찾아 다니기에 바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 중에서 우리 입맛에 맞는 것들은 몇 안되었지만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감자, 양파, 마늘, 호박 등이고 생각보다 영국인들이 마늘을 잘 먹기 때문에 어느 마켓에 가든지 구할 수 있고 마늘 냄새 많이 나는 음식을 해도 별장 없이 지나갔다.



보통 겨울엔 가을까지 수확해서 저장해 놓은 채소들을 위주로 하는 음식을 많이 해 먹는데 10월 중순에 심어 다음해 5월 수확을 하는 양파나 마늘 등이 그것인데 양파 혹은 마늘로프라고 해서 양파를 로프형태로 엮어 벽에다가 걸어 저장을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기 순환이 잘 되고 병충해 발생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구멍이 뚫려 있는 바구니에 담고 서늘한 곳에 놓아두어도 되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양파는 이렇게 저장을 한다. 특히 양파의 경우 결표면에 검정색 반점들이 생긴 것은 곰팡이 균에 의한 것인데 껍질을 벗기더라도 안쪽에 곰팡이 균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음식을 했을 때 배알이를 유발 할 수 있어 저장방법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늙은 호박을 저장하는 것. 늙은 호박은 수확하여 한 장소에서 위치를 바꾸지 않고 저장해야 썩지 않는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오히려 물러진다고 하니 저장할 장소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다.



저장식품으로 만들면 좋은 음식

1. 양파 타르트

- 1) 두꺼운 냄비에 올리브 기름을 두르고 양파를 넣어 부드럽게 될 때까지 튀긴다. 키친 타월에 얹어서 기름을 뺀다.
- 2) 베이컨을 냄비에 넣고, 몇 분간 익히고, 생기 기름을 버린다.
- 3) 생크림과 계란을 섞고 소금으로 간을 한 다음 양파와 베이컨을 섞어 밀가루 반죽 그릇에 넣는다.
- 4) 예열한 오븐(220도)에 넣고 10~15분간 구운 후 190도로 온도를 낮춘 후 다시 15분간 더 굽는다. 따뜻할 때 내놓는다.

*밀가루 반죽: 박력분이나 중력분 105g, 소금 2g, 차가운 버터 40g, 차가운 우유 32g을 이용해 반죽을 해 준다. 박력분은 바삭한 느낌, 중력분은 쫄깃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좋다.



2. 양파와 호두 머핀

- 1) 오븐을 예열한다. (220도), 양파를 데친 후 믹서에 넣어 곱게 만들어 250g의 퓨레를 만든다.
- 2) 녹인 버터(250g), 계란(2개), 설탕(1테이블스푼)을 넣어 퓨레에 섞는다.
- 3) 밀가루 350g과 베이킹파우더 1티스푼, 거칠게 부순 호두 300g을 퓨레에 섞는다.
- 4) 머핀 그릇에 재료를 넣고 20분간 굽거나 갈색이 될 때까지 굽는다. 따뜻할 때 내놓는다.



3. 호박 크로켓

- 1) 늙은 호박 껍질과 속을 긁어낸 후 찐다.
- 2) 찐 호박을 으개고 양파, 견과류 혹은 감자를 넣고 꿀과 소금, 후추로 간을 한다.
- 3) 손바닥 반만한 크기로 동글 납작하게 만든다.
- 4) 반죽을 밀가루, 튀김반죽, 빵가루를 묻힌다.
- 5) 냄비에 기름을 넣고 170도에서 노릇하게 구워 낸다.



한해 동안 수확해 놓은 재료들을 이용하여 만든 요리는 어느 것 보다 더 맛있게 느껴진다.
추운 겨울에 몸에 좋은 양파와 호박을 이용하여 요리에 도전해 보자.



우리 민족의 정서를 듬뿍 담고 있는 꽃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가야물봉선(흰색)

우리 민족의 설움을 가득 담고 있는 꽃

물기가 많은 습지에서 잘 자라는 봉선화라고 하여 이름 붙여진 물봉선. 진정한 의미에서 이 물봉선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정서를 듬뿍 담고 있는 꽃이 아닐까? 우리 민족의 설움을 가득 담고 있는 "울밑에 선 봉선화"도 역시 야생의 물봉선을 두고 노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다. 가정에서 흔히 기르는 봉선화(=봉숭아)는 아무 곳에서나 쉽게 자라는 중국 원산의 귀화식물인데 비해, 이 물봉선은 청정지역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자생식물이기 때문이다.



가야물봉선(흰색)

물봉선의 특징

산골짜기의 물가나 습지에서 무리지어 자란다. 줄기는 곧게 서고, 많은 가지가 갈라지며, 높이는 40~70cm이다. 잎은 어긋나고 길이 6~15cm의 넓은 피침형이며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다.



가야물봉선(흰색)



가야물봉선(흰색)



가야물봉선(흰색)



가야물봉선(흰색)



가야물봉선(흰색)



가야물봉선(흰색)



노랑물봉선(집사)



노랑물봉선(집사)



물봉선(열매)



물봉선(집사)

물봉선의 꽃

꽃은 8~9월에 붉은빛이 강한 자주색으로 피고, 가지 윗부분에 총상꽃차례를 이루며 달리는데, 작은꽃자루와 꽃대가 아래쪽으로 굽는다. 꽃의 지름은 3cm이고 밑 부분에 작은 포가 있으며, 꽃받침조각과 꽃잎은 각각 3개이다. 꽃줄머리는 넓으며 끝이 안쪽으로 말린다. 수술은 5개이고 꽃밥은 함쳐진다. 열매는 길이 1~2cm의 피침형이며 익으면 터지면서 종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이런 열매를 삭과(蒴果)라고 부른다.



물봉선

물봉선에 발달된 후각조직

몸체도 워낙 연약한 탓에(이런 이유 때문에 봉선화 노래가 생긴 것이 아닐까?), 바람만 불어도 쉽게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나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줄기의 곳곳에는 몸체를 탄탄하게 지탱시켜 주는 후각조직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다.



미색물봉선(집사)

물봉선의 종류들

이 물봉선 종류들 역시 아주 다양한 모양과 색깔로, 산지의 계곡 주변에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아주 호화롭게 피는 꽃이다. 전국 어디에서든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홍자색 계통의 물봉선, 꽃잎이 노란색을 띠면서 몸이 좀 연약하게 생긴 노랑물봉선, 깊은 골짜기 맑은 냇가에서 새하얀 꽃을 피우면서 귀엽게도 피어나는 흰물봉선은 전국 각지에 고루 퍼져 자라는 편이지만, 이 3종 이외의 나머지 종류들은 특정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종들이어서, 이들을 보려면 맘먹고 하나씩 전국의 자생지를 찾아다녀야만 한다. 물봉선보다 더욱 색이 짙은 흑자색의 꽃을 피우는 가야물봉선, 꽃이 아주 작으면서 전체적으로 흰색을 띠고 있는 꼬마물봉선, 잎보다 꽃이 아래쪽으로 처져 내려와 주렁주렁 길게 매달린 처진물봉선은 한때 거제물봉선이라고도 불렸었는데, 거제도의 해변가 특별히 발달된 자갈밭에서 자생하는 모습이 제법 대견스럽기도 하다. 노랑물봉선의 변이종인 미색물봉선은 꽃색이 훨씬 연하면서 특별한 지역에 자리잡고 곱게 자라고 있다.

물봉선과 봉선화의 차이

물봉선의 여러 종류들은 모두 야생화이지만, 봉선화는 외국에서 들여와 원예종으로 심어 기르는 점이 다르다. 중국 및 인도, 말레이시아로부터 오래 전에 유입되어 울밑이나 정원에 심어 기르면서 손톱을 빨간색 물들일 때 쓰기도 하는 봉선화는 사람이 길러줘야만 자라는 식물이라는 점이 다르다.



미색물봉선



봉선화



처진물봉선(집사)



처진물봉선



흰물봉선(집사)



흰물봉선

우정아 DIY 재활용 가드닝

자연의 부산물로 만드는 리스



가을이 지나면서 잎이 떨어진 나무의 잔가지와 소나무에서 떨어진 솔방울과 연자(연씨)가 떨어져 나간 연방(연자방) 등으로 만드는 리스는 화려하지 않지만 부드러운 색감으로 실내, 외에 장식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실내를 장식할 경우 토양이 없이 자라는 공중식물인 틸란드시아를 이용하면 관리가 용이하므로 식물과 함께 리스를 감상할 수 있다.

우정아 / 가든 코디네이터
KHDA(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가드닝 재료



나무 잔가지

솔방울

연방

틸란드시아
(스파에로세팔라)

틸란드시아
(우스네오이데스)

지철사

글루건

Step by Step



관리법

에어 플랜트라 불리는 틸란드시아는 착생식물로 공중에서 뿌리 없이 생육이 가능한데, 잎을 통해서 공기중의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여 생장하기 때문이다. 보통 공중이 습하면 녹색이고 건조하면 밝은 회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밝은 회색으로 변하면 물을 충분히 분무기로 분무해준다. 특히 틸란드시아 우스네오이데스는 겉쳐진 속까지 꼼꼼하게 분무해 주어야 한다.

WREATH 화환



수경형 실내정원으로
아름다움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세요!



정순진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 농업연구사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 실내 공기순환 부족과 건축 자재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흡입으로 두통, 만성피로, 천식, 아토피 등 현대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내공간에 공기청정기, 가습기, 음이온발생기 등을 설치하여 놓지만, 구매,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2차 오염원 발생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실내식물로 해결할 수 있다. 실내식물은 실내공간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살아있는 조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투명한 수(水)공간이 만나면 기능이 더해진다. 특히, 가전제품이 많은 사무실 공간이나 겨울철 난방 때문에 건조해진 실내공간에 식물을 배치하면 적정습도 유지, 음이온 발생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유해전자파,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공기 청정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녹색 식물과 수(水)공간을 이용한 천연 가습기를 만들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번 호에서는 수경형 실내정원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수경형 실내정원의 장점

- 용기 하부로 물이 빠질 염려가 없어 실내 어떤 곳에도 배치할 수 있고, 관리가 편하다.
- 생활공간 내 산소와 수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등을 제거해 환경을 아름답게 해 주는 기능을 가진다.
- 여름철 맑고 시원한 느낌을 더해주고, 투명한 용기 내 식물의 청결감이 좋다.
- 겨울철 건조한 실내 습도를 쾌적하게 한다.
- 식물의 줄기나 잎뿐만 아니라 지하부 뿌리의 모습도 감상할 수 있다.

수경형 실내정원은 식물의 뿌리 부분이 물속에 잠겨 있게 되므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뿌리는 흙에서 살아 그 기능을 하여야 하는데 흙을 자세히 보면 고체, 액체, 기체가 조화롭게 구성되어 뿌리 세포가 왕성하게 살아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물이라는 환경은 식물뿌리에 산소가 부족으로 말미암아 뿌리 세포의 호흡을 억제함으로써 생리적 대사 반응을 계속할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해 결국 식물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뿌리의 스트레스 반응은 지상 부로의 영양 및 수분이동에 장애가 생기거나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하여 지상부의 생장에 나쁜 영향을 주고, 관상가치도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수경형 실내정원을 할 때는 수경에 적합한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 수경형 실내정원에 적합한 식물

- 줄기 일부분을 잘라 물에 담그기만 해도 곧 뿌리가 생기는 식물
싱고니움, 스킨답서스, 아글라오네마, 디펜바키아 마리안느와 같은 천남성과 식물, 자주달개비, 트라데스칸티아 등의 닭의장풀과 식물, 조란, 시페루스 등
- 포복 줄기에 달린 어린 식물체 뿌리 부분을 물에 담그면 곧 뿌리가 자람
접란 등
- 알뿌리식물
초봄에 히아신스나 수선화, 아미릴리스와 같은 구근류의 알뿌리 일부분을 물속에 담가 광이 비치는 창가에 두면 향기로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 실내식물의 삽수를 채취하여 물에서 뿌리를 발생시킨 결과, 식물의 뿌리발생과 생육이 양호했다고 보고된 식물은 다음과 같았고, 이외의 실내 관엽식물 대부분 수경형 실내정원이 가능하다.
필레아 카디에레이, 아이비, 스킨답서스, 싱고니움, 필로덴드론, 접란, 드라세나 산데리아나, 클레로덴드론, 제브라나, 호야, 벤자민고무나무, 페페로미아, 임파티엔스, 아프리카 바이올렛, 콜레우스, 쉐플러라, 기누라, 안수리움, 아글라오네마 등



드라세나 '마리안다'



알로카시아



드라세나 프로그란스



아글라오네마



드라세나 산데리아나



스파티필름

2) 수경형 실내정원 관리방법

가) 광선

대부분 실내식물은 직사광선이 아닌 창가 쪽 밝은 곳에서 키우는 것이 생육이 잘되고 관상가치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경형 실내정원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창쪽에서 식물을 가꾸게 되면 광도가 높아서 원하지 않는 이끼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경형 실내정원으로 실내식물을 이용할 경우는 반드시 햇빛이 많이 드는 창쪽이 아닌 곳에 두면서 관상하는 것이 좋다.

나) 온도와 습도

적정 온도는 18~24℃로 인간이 생활하기 적당한 온도가 좋으며 창문 바로 옆이나 냉난방기, 환풍기 주위는 피하도록 한다. 수경형 실내정원을 이용할 경우는 식물체가 물속에 담겨 있으므로 별도로 공중습도 유지를 위하여 분무나 가습기 작동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수중모터를 이용한 연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수중모터가 물속에 잠길 수 있도록 수위 관리를 해주어야 모터 수명을 단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다) 관수

수경형 실내정원은 정해진 적정 수위(물의 높이)를 정하고, 물의 수위가 낮아졌을 때 보충하는 방법으로 물 관리를 하면 되므로 물 관리가 편리하다. 그런데, 적정 수위를 어떻게 정할 지가 고민이 된다. 대부분의 천남성과에 속하는 실내식물들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제부(뿌리와 줄기의 경계 부위)까지 물이 고여도 잘 견디지만, 필자의 경험상 대부분의 실내식물의 뿌리는 물에 모두 잠길 때,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뿌리의 윗부분 1/4~1/3까지는 물이 고이지 않고, 그 이하로 물이 차게 관리할 때, 새 뿌리의 발생이 활발해져 수경배지에 적응을 높게 하는 포인트이다.

STEP BY STEP 배수구 없는 용기



다만, 물에 이끼가 발생하거나 세균증식으로 물에서 악취가 나거나 관상가치가 떨어지면 곤란하므로 이끼가 생기지 않게 직사광선을 피하여 관리하며 경우에 따라서 오버플로우(overflow) 방식으로 용기 내의 물을 청소해 해주거나 교체해 주면 좋다.

3) 수경형 접시정원 실제 만들어 보기



▲ 용기 및 연무기(안개 발생기)

- 고정 다리가 있는 원형 유리 접시(배수구가 없는 용기이면 됨)
- 연무기(약 2만원)자동 램프가 작동하면서 안개를 흩어줌.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됨.연무기 달림판 3,000~5,000시간 작동 달림판만 교환 가능 3~4천원

▲ 식물체 지탱, 정화, 장식 기능 배치

- 통숯, 맥반석 (수경형 실내정원에 필수 배치)(식물체 지지, 물의 정화, 장식 배치)
- 화산석, 마사, 옥자갈 (식물체 지지, 표면 장식 배치)



Point

배지 및 영양물은 물에 계면이 적당히 붙어 물이 나오지 않게 함. 특히 통숯은 가루가 떨어지므로 식은 후 바로 사용하지 않음. 화산석은 물을 흡수하여 머금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습기를 좋아하는 식물들을 부착하여 이 용하면 좋다.

▲ 이용한 식물소재

- 알로카시아, 아글라오네마, 드라세나 셀렉스, 페페로미아 푸테올라타, 애기석창포, 왜란, 콩짜개덩굴, 마삭줄

Point

식물소재는 물에서 적응력이 뛰어난 종류를 선택해 심기 전에 분의 물을 다 털어내어 계면에 물을 묻혀 계면층은 화산석에 걸쳐 물에 잠기지 않게 함을 보충하여 이용하면 좋다.



① 마사를 용기 중심에 약간 넣은 후 중심 식물인 알로카시아를 왼쪽 후면에 배치함



② 중심식물인 알로카시아와 대각선 오른쪽 전면으로 아글라오네마를 배치함



③ 중심인 알로카시아를 기준으로 앞뒤로 덩굴성 페페로미아와 키가 낮은 드라세나류를 배치하여 원근감이 생기도록 함



④ 검정색 통숯과 화산석이 아름다운 침경들이 될 수 있음. 중심에서 식물이 나오는 듯하게 배치함

Point: 4시간의 햇빛(조명)에 무배지 물에 하루 1회 물을 교환하여 큰 식물도 배지하루 1회 교환함

Point: 식물마다 양을 주고 배지하루 1회 물을 교환하여 큰 식물도 배지하루 1회 교환함



⑤ 식물을 배치한 후 맥반석 및 마사로 식물이 잘 고정되도록 마무리하고, 식물체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함

Point: 입자가 작은 배지일수록 식물이 뿌리가 잘 고정됨



⑥ 옥자갈이나 흰자갈, 맥반석 등으로 표면을 장식하고, 물을 채운 후 연무기를 가동함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 광: 가능하면 빛이 드는 곳이 좋으나 인공광하에서도 가능함(직사광선 x)
- 온도: 20℃ 내외의 실내 공간에는 어디서든지 OK
- 관수: 물에 잘 잠기는 식물이므로 지체부 밑으로 물을 채워줌(특히 연무기는 물에 잠기지 않으면 고장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함)
- 시비: 1년에 한 번 봄철에 완효성 고형 비료 조금 주면 관상가치가 높아짐

겨울철 저온에 주의!! 식물의 증산과 수면의 증발로 습도 조절 효과가 뛰어나지만, 뿌리가 물에 담겨 있는 상태에서 낮은 온도 환경에 접하면 화분에 심어진 식물보다 저온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생육이 나빠지므로, 추울 때 장식물을 운반하거나 야간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실내에 배치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독자들이 만드는 Q & A



우리 식물이 아파요!
어떻게 하지요?



동물도 식물도 모두 모두 병해충의 위협 속에

지금은 응급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아마도 연세가 50대 이상인 분들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아이가 몸이 펄펄 끓는다든지, 배를 움켜쥐고 자지러지게 우는 바람에 잠자다 말고 한 밤중에 애를 들쳐 업은 채 응급실로 달려갔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때 만큼 의사의 존재가 절실했던 경우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아픈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동물도 식물도 모두 모두 병해충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식물은 말이 없고, 또 우리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해서 그렇지, 식물들은 많은 병해충으로부터 시달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뒷밭에서도 정원에서, 그리고 베란다에서도 병해충은 끊임없이 식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품 안에서 자란 식물들은 야생식물들 보다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병해충의 피해를 받습니다.

식물에 병충해가 나타나면 일단 미관상으로도 보기 싫지만, 때로는 경제적 피해까지 일으키기도 하므로 그것을 치료하여야 하는데, 막상 치료하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물에게도 식물병원

사람에게는 병원이 있고, 동물에게는 동물병원이 있듯이 식물에게도 식물병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식물병원이 꽤 많으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다만, 이 병원이 일반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또 병원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달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요. 제가 속해 있는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도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며 수목류의 병충해를 진단하고 치료법을 알려주는 일종의 식물병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신가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식물에 이상이 나타났을 때 그 원인과 대책을 무료로 자문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글 사진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장 차병진

이런 병원들은 크게 대학교 부설,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각 지자체 농업관련 행정부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IT 강국인 우리나라답게 요즘에는 이러한 기관들이 모두 웹 사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진단 및 처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에도 매우 편리합니다.



사진. 농촌진흥청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 초기 화면(http://ncpms.rda.go.kr).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이란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역시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축인 농촌진흥청의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입니다. NCPMS는 인터넷 주소 창에 <http://ncpms.rda.go.kr> 을 입력하거나 또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병해충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사진1). 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병해충진단'이라는 단추를 선택하여 클릭하면 진단사이트에 접속되는데, 여기에서 '전문가진단의뢰'를 통하여 그 기관의 식물의사들에게 진단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직접 진단하고자 할 때는 '병해충 진단'의 '사진검색'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작물로 접속하면(사진2) 그 작물의 대표적인 병해충 사진들이 나열되는데, 여기서 비슷한 증상의 것을 클릭하여 설명과 함께 비교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이라는 것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100% 확신이 없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의 병해충진단 사진검색 화면

농업기술원 기관 홈페이지 '병해충발생정보' '식물병해충진단실'

각 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농업기술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 농업기술원만이 '사이버식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진3). 나머지 도 농업기술원들은 실제로 민원인이 식물병해충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상이 농작물에 국한되어 있으며, 인터넷 진단사이트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도 농업기술원들이 기관 홈페이지 내에 '병해충발생정보' 등 농촌진흥청 NCPMS의 일부 서비스나 자료 등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군 등 각 기초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 역시 도 농업기술원들과 마찬가지로 '식물병해충진단실'을 설치하여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매우 드물며, 거의 대부분이 의뢰인의 직접 방문접수를 통한 진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상도 주로 농작물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화훼류 등, 특히 가정 식물의 진단의뢰에는 적당치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식물진단사이트 '사이버식물병원'

충북대학교의 식물종합병원

'식물병원' 설립하여 진단서비스

각 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농업기술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 농업기술원만이 '사이버식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진3). 나머지 도 농업기술원들은 실제로 민원인이 식물병해충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대상이 농작물에 국한되어 있으며, 인터넷 진단사이트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도 농업기술원들이 기관 홈페이지 내에 '병해충발생정보' 등 농촌진흥청 NCPMS의 일부 서비스나 자료 등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군 등 각 기초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 역시 도 농업기술원들과 마찬가지로 '식물병해충진단실'을 설치하여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매우 드물며, 거의 대부분이 의뢰인의 직접 방문접수를 통한 진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상도 주로 농작물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화훼류 등, 특히 가정 식물의 진단의뢰에는 적당치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1) 식물진단서비스 인터넷 사이트 주소

기관명	인터넷 주소(http://)
농촌진흥청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ncpms.rda.go.kr
경기도 농업기술센터 사이버식물병원	www.plant119.kr/
충북대학교 식물종합병원	www.planthospital.org/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snupc.snu.ac.kr/
안동대학교 식물종합병원	planthospital.andong.ac.kr/

차병진교수님의 Q&A코너는 이번달까지 진행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든인은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가든인은 가든인만의 새로운 Q&A로 다음호부터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단군신화를 낳게 한

마늘



글 사진 안완식
토종씨드림 대표

한인의 아들인 환웅은 천부인 세 개와 3,000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신시를 여는데, 이때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 인간이 되게 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곰은 마침내 썩과 마늘로 인간이 되고 환웅은 이와 혼인하여 단군을 낳게 된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늘은 아마도 야생달래나 산마늘이 아니었을까?

마늘은 생태형을 보아 따뜻한 지방에서 잘 되는 난지형과 추운 지방에서 잘 되는 한지형으로 구분된다. 난지형은 스페인 등의 남부 유럽이나 중국의 남부 지방 등이 원산지이고, 한지형은 중국이나 유럽 북부 지역이 그 원산지이다. 마늘은 이미 고대에 유럽 북부 지역으로 전파되어 이집트시대 (B.C.3000)에 피라미드를 축조할 때 노예들에게 많이 먹었다고 하며 그리스와 로마시대에도 병사와 운동가들에게 먹었다고 한다.

삼국시대에 이미 중국으로부터 마늘을 들여와 재배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말기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는 대산(大蒜)과 소산(小蒜)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고, 1927년 <동의보감>에는 대산을 여섯 쪽마늘, 그리고 소산은 족지라 하여 개성 지



Garlic

방에 재배되었던 쪽이 많은 장신마늘 또는 쉰 쪽마늘이라 하여 고려대산이라 하였으며 아마도 현재 완주지방에서 드물게 재배 하고 있는 뒤안마늘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야산(野蒜)은 달랑괴라 하여 지금의 달래로 구분하였으니 우리의 정말 토종은 소산인 족지인 듯하다.

모든 작물과 마찬가지로 마늘도 적지 재배가 필수적이다. 예로부터 품종에 따른 재배적지가 주산지가 되었는데, 북쪽과 내륙지방인 단양·서산·의성 등은 6쪽마늘의 한지형이, 고흥·남해 등에는 여러 쪽 마늘인 난지계 마늘이 토착화 재배되었다. 그 외에도 특유의 향을 가지고 늦게까지 쫄마늘로 이용할 수 있는 거제도도의 소(小)마늘과 주로 쫄마늘로 사용되는 제주도의 자봉마늘이 있다. 대부분 그 지방의 이름을 따서 '○○마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부지방에서도 여러 쪽 마늘보다 여섯 쪽 마늘이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남부 지방에 잘 적응되는 여섯 쪽 마늘을 선택, 재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농민들에 의하여 그 지역 환경에 잘 적응될 수 있는 작물과 품종이 선발되고 정착되어 옴으로써 하나의 지방종으로 발전하였다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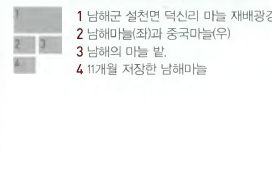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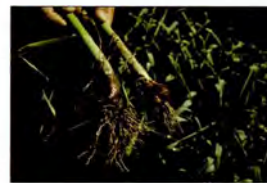
마늘은 옛 부터 유럽에서는 만능 약으로 써왔고 강장제로 생각하였으며, 중국에서는 진정제로 써왔다. 마늘은 살균력이 강하여 세계 제1, 2차 대전 때는 전정터에서 즉석 소독제로도 이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마늘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유효화합물인 '알린' 성분이 들어 있어서 맵고 특유한 향을 내게 한다.

젓먹이의 볼처럼 통통하면서 매운 남해마늘

경남지방의 마늘 주산지로는 남해, 합천, 창녕과 하동군을 꼽을 수가 있다. 현재 남해에서 재배되고 있는 마늘은 거의가 중국이나 스페인에서 도입한 난지계 마늘이며 무성하고 마늘통이 커서 눈으로 보기에 좋은 상품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장성이나 마늘 특유의 향기가 약해 품질이 떨어진다.

남해의 토종마늘은 여섯 쪽으로 크기가 일약 — 남해 농부들 사이에 통용되는 굵기의 단위로 엄지와 장지를 붙여 만든 크기의 굵기 — 으로 작고 대도 가늘고 홀쭉한 편이지만 향기가 짙고 매우며 성숙기에 이르면 마늘쪽 하나하나가 통통하게 알차서 껍질이 벗겨지기 쉬우며 벗겨 놓으면 젓먹이의 볼과 같이 통통하고 예쁘다.

토종 남해마늘은 한참 숨 가쁘게 등산을 해야 하는 산허리의 귀퉁이 밭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역세게 견뎌온 것을 증명이나 하듯 많은 수염뿌리를 단 특유의 적자색의 마늘통이 단단해 보인다. 개는 시기가 늦어져야 알이 차서 쪽이 벌어질 정도로 통통하고 단단하며 저장성 좋은 마늘이 생산된다고 한다. 겉보기 좋은 다수성 스페인종이나 중국종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토종이 안쓰럽기 짝이 없다.



- 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마늘 재배경관
- 2 남해마늘(좌)과 중국마늘(우)
- 3 남해의 마늘 밭
- 4 11개월 저장한 남해마늘

매운 맛에 저장성이 좋은 의성마늘

의성군은 중부 내륙 지방으로, 예부터 마늘의 명산지
로 유명하다. 전해오는 바로는 임진왜란 후부터 재배
되어 왔다고 한다. 의성이 마늘의 주산지가 된 연유가
있는데, 첫째로 오래 전에 의성을 치산 2동(선암)이란
마을에 의성 선암종이란 좋은 마늘이 재배되고 있었고
둘째로 토성이 마늘 재배에 알맞는 식양토이고 셋째로
6월의 기온이 마늘 생육적온에 가까운 14.6℃~22℃이
며 수확기에 비교적 강우량이 적고 넷째로 밀·보리를
심는 것보다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섯
째로는 마늘은 배수만 잘 되면 연작을 하여도 큰 피해
없이 잘 되기 때문이다.

의성군 봉양면 장대전 나호 부락에 사는 설태종(73세)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의성재래마늘을 계속 심어왔다
며 “수백 년을 심어도 괜찮아. 예전종이나 중국종보다
작지만 6쪽 마늘인데 키가 크고 대공이 강하며 매운 맛
에 저장성이 강하지…….”라면서 자랑을 늘어놓고는
마늘을 매달아 저장하는 덕 밑 그늘에 앉기를 권한다.
의성마늘은 주로 논마늘인데 주생산지는 사곡시로 유
명한 사곡면, 안평면, 의성읍 등으로 전 경지면적의
5% 정도인 1,200헥타르까지 재배되었으나 지금은 중
국에서 도입되는 싼 마늘 때문에 농촌 임금이 높은 의
성에서도 점차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마늘통이 희고 마늘종이 잘 올라오는 단양마늘

단양읍을 끼고 도는 남한강은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도담삼
봉, 고수동굴, 노동동굴과 상선암, 하선암, 중선암, 사인암과 그 앞을 흐르는
계곡은 언제나 여름철 피서객과 관광객으로 만원이다.
제천에서 5번 국도로 단양에 들어서 도담삼봉을 돌아 남한강을 끼고 10여km를
달리면 단양에서 마늘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었던 단성면 북하리에 닿는다.
단양마늘은 의성마늘에 비해 대가 약하고 키가 작은 편이며 마늘통이 약간 흰
편인데 마늘종이 잘 올라오는 것이 특징이다.

단양군은 중부 내륙의 석회암지대로 1980년대만 하더라도 총 경지면적의 8.7%
인 740여 헥타르에 마늘이 재배되었다. 단양의 토양은 마늘의 요구도가 비교적
높은 석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점질토로 마늘재배의 적지인 것이다.
단양마늘의 재배역사는 상당히 오래 되었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고 1960년 이
전부터 밭마늘을 재배하다가 1965년부터는 논마늘의 재배가 시작되었다.

단양마늘은 통이 의성마늘보다도 작아 무게가 25~30g 정도인 그리 크지 않은
6쪽마늘인데 논마늘보다는 밭마늘이 저장성이 좋은 편이어서 도시의 채소 시
장에서는 훨씬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므로 타지의 마늘이 단양마늘로 둔갑하
고 하고 진짜 단양마늘은 감추어 두고 잘 아는 사람에게만 주기도 한다.



- 1 의성마늘은 여섯쪽이다.
- 2 여러가지 마늘(예전종, 의성종, 단양종, 중국종)
- 3 단양마늘의 저장모습
- 4 단양마늘

정선의 건천마늘

정선군 화암면 소일길은 예로부터 동리 지명을 건천리라 불렀다.
800고지의 산 아래 위치하고 있는 소일 마을은 계곡이 깊지 않아
서 비가 올 때를 제외하고는 개천이 마른다 하여 건천리라 불렀
다.

이곳에서 5대째를 살고 있는 권복성(75)할머니는 시할머니로부터
왜무꾸(서양배추의 일종)를 비롯해서 물외(토종오이)와 건천마늘
을 대물림하여 심고 있다.

3대째를 심고 있다는 건천마늘은 그 크기가 어린 아이를 주먹보다
커서 스페인계의 큰 마늘보다도 크다.

8쪽에서 10쪽 정도 되는 북방형마늘인 건천마늘은 단양 마늘이나
의성마늘보다 맵지만 남방형 마늘인 스페인마늘이나 중국마늘에
비해서는 덜 맵고 그 향이 짙으며 김장을 하면 맛이 좋단다.

건천마늘은 임계면에서도 심고 있지만 화암면에서는 널리 재배되
지 않고 건천리 일대에서 집집마다 재배하고 있는 마늘이지만 권
복성 할머니는 퇴비거름을 많이 하고 늘 심는 밭에만 연작을 하는
특별한 재배방법으로 도회로 나간 자녀들과 집에서 소비하려고
계속 심고 있단다.



완주의 뒀안마늘

완주지방에는 전부터 뒀안마늘을 심어왔다. 그 용도가 양념으로서가 아니라 꽃
마늘로 먹기 위해서 집 근처 텃밭에 심는다. 뒀안마늘이란 이름은 말뜻 그대로
마늘은 마늘이지만 구가 커다란 다른 보통 마늘에 비하여 극히 작고 쪽이 무척
많아서 양념으로서도 도저히 보통 마늘을 따라갈 수가 없기에 관심을 끌지 못
해 쓸쓸하다는 처지에 비유하여 부쳐진 이름이다. 뒀안마늘은 이름처럼 주로
뒀이나 텃밭에 심어서 꽃마늘로 봄에 일찍 뽑아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먹어
도 좋고 막창이나 고추장에 찍어 상추쌈과 함께 먹어도 맛이 순해서 완주 근처
의 남도지역에서 즐겨 먹었던 마늘이다.

강증산(姜甌山, 1871~1909)의 증산도(甌山道)의 도전(道典) 2권 116장에도 마
늘도 뒀안마늘 왕마늘이 있고, 대도 왕대 중대 시누대가 있는데, 사람이라고 어
찌 굶은 사람이 없겠느냐? 라고 하여 뒀안마늘이 잘고 보잘 것 없는 마늘로 비
유하고 있다. 완주군 고산면에 사는 백촌이(58세) 아주머니는 시집와서 시어머
님으로부터 대물림하였다는 뒀안마늘이 20쪽이나 되는 작은 마늘이어서 양념
으로 쓰려면 어렵지만 이른 봄 후성귀가 별로 없고 맵지도 않으며 마늘쫑도 나
오지 않아서 장아찌나 부침개를 부쳐 먹으면 맛이 그만이라한다.



- 1 건천마늘을 펼쳐놓고 있는 권복성 할머니
- 2 정선의 건천마늘
- 3 꽃피는 마늘의 꽃
- 4 완주 뒀안마늘은 20여쪽 정도의 작은 마늘이다.
- 5 완주 뒀안마늘은 마늘이 작고 쪽이 많다.
- 6 마늘의 월동 후 상태. 토종마늘(좌)은 중국종(우)보다 생육이 늦다.

Allium과 정원 식재로 디자인

Allium schoenoprasum 서양부추

재배 역사를 보면 유럽에서는 2000년전부터 재배했는데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주로 이용. 가정채소로서 약 16세기이후이고 식용과 꽃을 보는 관상용으로 유럽에서는 겨울철과 봄에 축성용으로 재배. 내한성이 매우 강한 호랭성 채소로서 알프스에서는 해발 2500m까지 자생한다. 서리에도 강하나 아주 심한 서리는 생육을 억제시킨다. 토질은 유기물과 석회분이 많은 곳을 좋아한다. 특히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한다. 요즈음은 정원수로도 Allium의 식재로 차지하며 정원속에 허브역할과 병충해의 방지등 유용하게 이용되며 꽃은 정원으로 아름다움도 장식한다.



Allium ursinum (Wild garlic)

Tip 디자인효과

작은 공간에서 원형으로 올라오는 디자인의 미적 효과 연출
등근 볼 모양의 꽃의 개화는 정원에서는 시각적으로 건축적
이미의 모양을 연출
Allium의 종을 여러 종 선정하여 보다 전문적인 식재의 연출
로서 인기품목.
정원디자인 색상을 보다 포인트를 강조하는 색상연출
다른 품종보다 오랜 기간 꽃을 연출하는 이점
허브식물로서 주변 병충해의 환경을 보호하여 주며 내한성이
강한 식물

성분과 효능

생마늘 100g속에는 탄수화물 30.0%, 단백질 5.4%, 지질 0.1%, 무기질 0.5%가 들어 있는데 당질의 대부분은 과당이다. 무기질로는 칼슘, 칼륨, 철분, 유황 등이 많고 그 외에도 마그네슘, 망간, 아연, 셀레늄등이 들어 있고, 비타민 B1, B2, C, 엽산도 상당히 들어 있다. 그러나 마늘이 갖는 특별한 효능은 이러한 일반 성분보다는 미량 들어 있는 알리인 스크코디닌에 의한다.

마늘은 매운맛이 강해서 특히 위나 간이 나쁜 사람은 마늘을 생으로 먹는 것을 피해야 한다. 마늘은 위를 보호하지만 자극이 강해 많이 먹으면 위가 쓰리고 생마늘은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 그러나 마늘은 구워도 영양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마늘 특유의 매운 맛이 사라져 먹기에 편하고 소화 및 흡수율도 높아진다.

강력한 살균 및 항균작용

알리인(allicin)은 마늘의 대표적 성분으로 마늘을 자르거나 뺄 때 세포가 파괴되면서 알리신이 된다. 알리신은 비타민B과 결합하여 활성비타민으로 되어 인체에 흡수되어 인체에 활력을 준다. 또한 강한 살균·항균 작용이 있다. 식중독균 뿐 아니라 위궤양을 유발하는 피로리균을 죽이는 효과도 있다.

체력증강 및 피로회복 작용

활성비타민B인 알리티아민은 마늘알리신(allicin)과 비타민B(thiamin)의 합성물로서 체내에 흡수되어 활력증진, 피로회복기능을 한다. 알리티아민은 비타민B 분해효소의 작용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비타민B(thiamin)보다 10~20배나 많이 그리고 쉽게 체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마늘이 피로회복, 정력증강에 효과를 높여준다. 비타민B은 마늘 비타민B(alithiamin)으로 섭취하면 필요량은 사용되고 여분은 체내에 저장되어 나중에 몸이 지치거나 피로해졌을 때 저장되었던 마늘비타민(alithiamin)이 사용되어 신체를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알리나민(아로나민)은 일본의 후지히라 박사가 알리신과 비타민B, 단백질을 혼용하여 합성한 것으로 강정, 소화촉진기능이 있다. 마늘비타민B(alithiamin)을 화학 합성한 약이 우리가 약국에서 흔히 보는 아로나민이다.-동맥경화 개선, 신체노화 억제; 비타민 B보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혈액과 세포를 건강하게 하며,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구석구석의 세포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여 노화를 억제한다.

정력을 강화

마늘의 알리신은 비타민 B와 결합해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알리티아민은 호르몬 활동을 조절하고 난소나 정소의 기능을 좋게 해 정력을 증강시킨다. 또한 마늘에 함유된 '리진'이라는 단백질은 정자의 기능을 활발하게 한다.

고혈압 개선작용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은 간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효소 작용을 억제하여 콜레스테롤 생산을 방해하며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동맥경화를 예방하여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며, 마늘에 들어있는 칼륨이 혈중 나트륨을 제거하여 혈압을 정상화 시키는 작용을 한다.

정장 및 소화작용을 촉진

마늘에 많이 들어있는 알리신이 위점막을 자극, 위액분비 촉진 및 대장을 정상화한다.

항암작용

디아릴디설파이드(DIALLYL DISULFIDE), 유기성게르마늄, 셀레늄이 암의 억제 및 예방. 디아릴디설파이드는 암세포에 독성효과를 주어 암세포의 자연사를 유도한다고 한다. 마늘에서 추출한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전립선암과 방광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안암병원 비뇨기과 천준 교수는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으로부터 마늘의 항암 성분인 알리신을 적립성암과 방광암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임상에 이용할 수 있는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신경안정 및 진정효과

마늘에 많이 들어있는 알리신이 인체의 신경에 작용하여 신경세포의 흥분을 진정 및 안정화시키고 스트레스 해소 및 불면증을 개선시킨다.

노화 예방: 마늘에 들어 있는 알리신은 체내에 흡수된 뒤 혈중 적혈구의 작용을 도와 혈구 자체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면역력 강화 알리신은 세포나 임파구 등의 백혈구 기능을 촉진해 면역성을 키운다.

당뇨 개선 마늘에 많이 들어있는 알리신이 췌장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당뇨를 개선시켜 준다.

해독작용 마늘에 들어있는 시스테인과 메티오닌 성분이 강력한 해독작용으로 간장을 강화시키며 알리인, 알리신, 치오에틸, 메가프탄, 유화수소 성분 및 그 유도체는 수은 등 중금속을 배출하고 세균을 제한다.



생활 속의 민간요법

'3월에는 양파를 먹고 5월에는 마늘을 먹어라. 그러면 그해의 나머지 기간 동안 의사들이 편안히 놀 수 있다.'란 옛말이 있다.

감기, 편도선이 부었을 때 1컵에 마늘즙 2~3방울 넣고 목을 헹구면 특효

결핵, 호흡곤란 마늘술(독한 술에 6개월이상 숙성을 한 전소주잔씩 정복

기침과 가래가 심할 때

마늘 1쪽을 삶아 찢은 것을 달걀 1개와 섞어서 한번에 먹는다. 삶은 마늘을 꿀이나 물엿에 찍어 아침저녁으로 먹어도 좋다.

고혈압 구은마늘 10쪽을 아침저녁으로 꾸준히 먹는다.

저혈압일 때

마늘 6~7쪽을 길게 볶은 뒤 검은깨 한 홑과 꿀 180ml를 섞는다. 이것을 유리병에 담아 밀봉하여 1개월 정도 서늘한 곳에 둔다. 한 달 뒤에 꿀알 크기의 환을 만들어 하루에 2번, 한 번에 1알씩 따뜻한 물 1잔과 함께 먹는다.

만성 소화불량과 복통 마늘 500g을 찢은 것에 설탕 200g을 뿌리고 마늘이 반쯤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 약한 불에서 끓인다. 마늘이 완전히 익으면 병에 담아 밀봉해두고 하루 3번씩 끼니 뒤에 먹는다. 이유 없이 배가 살살 아를 때도 효과가 있다.

냉증일 때 마늘 500g을 병에 담고 마늘이 잠길 만큼 꿀을 부어 서늘한 곳에 6개월간 저장해둔다. 6개월 뒤에 하루 1~2쪽씩 꾸준히 먹는다.

치질 잘게 썰어 말려 기름지에서 기름을 내 뜨겁게 데워 마시지하듯 문지름



9강 실내조경의 노하우

- 실내식물은 외국에서 온 것들이라고 인식하면 쉽다.
→ 열대, 아열대 식물을 수입한 것
- 실내외 실외의 환경 차이
→ 해, 바람, 비, 계절이 없고 생육지반이 다르다.

처음 조성시 90% 이상으로 완성시켜놓고 유지관리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실외조경에서처럼 작은 묘가 성장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실내조경 조성의 TIP

- ① 집중력과 차분한 속도로 작업해야 한다.
- ② 작은 용기일지라도 간단하게 설계계획 후 작업하는 것이 좋다.
- ③ 적은 묘종들은 젓가락으로 들어서 식재하고 미루리는 숟가락으로 답압한다.
- ④ 물을 줄때는 종이컵에 담아 식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주며 한번 물을 준다. 테라리움 화분의 경우 대부분 과습으로 식물이 물러 죽기 때문에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물을 준다.



고심하여 도면그리기



색지칼과 마시토 씻기



테라리움 만드는 수강생모습



테라리움 만드는 수강생모습



테라리움 만드는 수강생모습

10강 친환경 유기농업과 토종종자

- 토종이란?
→ 토종은 한반도의 자연생태계에서 대대로 살아 왔거나 농업생태계에서 농민에 의하여 대대로 사육 또는 재배되고 선별되어 내려와 한국의 기후풍토에 잘 적응된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이다.
- 제주도의 종자를 경기도에 심으면.. 그것이 토종인가?
→ 아니다. 같은 우리나라이지만 큰 지역이동 후 심으면 온전한 토종이라 볼 수 없다.
- 종자보관은 말리면 죽는 것, 말릴수록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종자들은 잘 말려서 다시 흡습하지 않도록 0~4℃에만 보관하면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다.



인원식교수님



토종종자수집



토종종자보존

가든조아 딸기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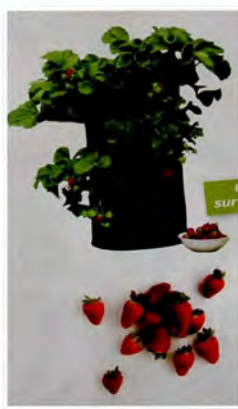
베란다에서 딸기를 즐기자.

가정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수확하는 가든조아 딸기팩.
40~50일후 베란다에서 빨간 딸기가 주렁주렁.
달콤하고 깨끗한 딸기가 열립니다.

가든조아 딸기팩 : 7천원

연락처 031-712-7009

(딸기모듬+실토 주머니 금액 추가됩니다)



11강 녹색환경과 숲 활동; 산음자연휴양림 치유의숲 프로그램 견학

- 치유의 숲으로 지정되어있는 산음 자연휴양림의 무료 치유프로그램 예약
→ <http://cafe.naver.com/saneumhealing>
- 중장년층에게 편안한 회복의 숲 프로그램 내용
→ 건강체크 - 손체조 - 맨발산책 - 숲속 마사지 - 눈감은 동행자에게 숲길 안내하기 - 잣나무숲 명상 - 아로마 마사지로 마무리



건강체크



눈감고 안내하기



맨발산책



명상



숲속마사지



숲속마사지



숲속마사지

12강 수로식

- 종강특강
한민족 먹을거리와 식문화 (나훈채 총장) / 정원문화와 디자인 (이명 상무)
- 수강생 발표:
“맥문동 꽃잎이 피었습니다” (이선형 님) / 아파트 공공정원에서 쓰레기장으로 사용되며 잡풀이 난무했던 공간을 맥문동을 키우게 되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주민들과 대화하게 되면서 많은분들과 꽃의 아름다움 식물이 주는 행복함을 나누게 됨
“나의 꿈 원예치료농원” (정성희 님) / 처음 농가를 구입하게 되면서 넓은 공간들을 바꾸고 가꿔온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와 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꿈을 소개함.
“소나무 전정과 두가지 TIP” (김준식 님) / 과수정원을 직접 가꾸면서 경험한 소나무 전정의 팁과 고추밭 물주기 비법까지 전원주택 정원에서 꼭 필요한 비법들을 나누어 주심.
“금곡동 행복마을” (권정미 님) / 분당구 금곡동 아파트에서 주민들과 모여 꽃과 식물사랑을 전파하며 경험한 여러 가지 감동 이야기들을 발표함.
- 수료증과 개근상에 종강 선물까지 풍성하고 감동의 소감발표시간까지 풍성하고 감동이 넘치는 2014년 이천그린아카데미 5기 수료식 현상이었다.



수료식특강



수료식특강



수강생발표



수강생발표



수료식



다과파티



다과파티



다과파티



다과파티

2014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 Korea Landscape Architecture Expo

KOREA LANDSCAPE ARCHITECTURE EXPO

2014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

[2014.11.06. ~
2014.11.10.]



글/사진 고정우

2014년 가을의 끝자락에, 우리꽃이 조경문화박람회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조경문화박람회 역사상 처음으로 야외 박람회 개최를 하였으니,
우리꽃이 어떻게 참여를 하였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Ready! and Go! 두둥~



이런,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방들과 Eco팬스는 위치가 잡혀져 있고, 공룡알(?)은 배대만 앙상히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 정식명칭이 없습니다. 우리꽃 직원들이 그냥 '공룡알'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박람회는 '조경, 도시의 꽃이 되다'라는 모토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경 문화 축제에 초대할 하는 것이며, 우리꽃의 전시 디자인이 이를 충분히 표현 했다고 자부합니다.



꽃과 나무 그리고 식물들을 방들과 팬스에 꽃고, 공룡알을 천으로 덮으니, 서서히 균형이 잡힌 모습이 드러납니다.



완성된 우리꽃 전시화장입니다.

우리꽃 7가지 전시 분야 1. 가든조아 가판대 2. 우리꽃 종합 안내소 3. 벽화수/방울 안내소 4. 가든조아/가든인 안내소
5. 방울/Eco팬스 조경 설치 6. 국화 분재 전시회 7. 가든인 가판대



1
가든조아
가판대

우리꽃 최고의 미녀들로만 선발된 판매 TFT 일입니다.
일반 관람객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튤립 구근과 가드닝 장비 등을 판매하며,
우리꽃 홍보에 선봉을 담당하였습니다.
세종대왕 바로 오른쪽에 있어서 하루 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지나갔으며, 추석구근의 왕 "튤립"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어머~, 저 양파는 정말 작고 예쁘게 생겼네요? ㄸ", "양파 아닙니다. 튤립입니다. ㅠ ㅠ"



2
우리꽃
종합 안내소

초화류부터 방울까지 우리꽃의 전체 주요 품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안내소 내부 모습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들고 붙이고 했습니다. 애구 어개야~.

3

벽화수/방틀
안내소

벽화수/방틀/ECO팬스의 기능 및 적용과 시공사례를 전시 하였습니다.
가장 아쉬움이 많은 안내소였습니다. 밖에 전시된 방틀과 ECO 팬스를 한눈에 보기 쉽게 잘 정리한 내용물을 전시 하였으나 방문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꽃의 벽화수가 국내 여러곳에 사용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4

가든조아/
가든인 안내소

가든인 9-11월호 표지/목차와 가든조아 교육프로그램 안내 내용을 전시 하였습니다.

5

방틀/ECO팬스
조경 설치

분홍색 방틀과 아이의 외투가 잘 어울립니다. 세종대왕이 화살나무와 구름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건물과 대조가 되어서 도시 조경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핑키 (Pinky) 디자인이었습니다.

6

국화 분재
전시회

이천그린아카데미가들이 직접 재배한 국화분재 전시회는 내/외국인 모두가 꼭 한번은 사진을 찍어가는 장소였습니다. 도로변에 개방되어서 지나가는 차량에서 운전자가 한눈을 팔아 사고를 낼까 봐 아꼈었습니다. 도로변이 개방 되어서, 지나가는 차량에서 운전자가 한눈을 팔아 사고가 날 수 있는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7

가든인
가판대

우리꽃에서 제일 작은 공간을 차지한 가든인 가판대입니다. 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문의하여서 많은 방문자는 없었습니다. 관심을 주시는 분께는 무료로 작년 7월호 1부씩 드립니다. 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문의하여서 많은 방문자는 없었으나, 다행히 옆에 있는 국화 분재에 관심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 어쩔너머로 가든인 홍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든인 구독자 몇 분께서 오셔서 격려도 해 주셨으며, 복귀 후 가든인 홍보에 대해 반성과 고민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제일 인기가 많은 타요입니다. 항상 어린이들로 붐벼서 제대로 사진 찍기가 제일 어려웠던 장소입니다. 오전에 한가한 틈을 타서 한방 찍었습니다.



이천그린아카데미 강사님이 강연 중입니다. 중앙광장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곤 했습니다. 우리꽃은 크까지 주제로 강연을 준비 하였고, 주체 측에서도 준비한 연주 및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꽃 강연이 가장 사람이 많았습니다. 무료로 배포 한 사은품 때문에 아니겠지요.



멀리 광화문이 보이는 북측광장 전시장입니다. 몽골테트로 부스를 차린 시모모 소규모 업체들이 바로 이곳에 전시참여를 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왼쪽에 전시 부스를 차렸으며, 많은 관광객이 지나치는 명당 중의 명당을 결국 우리꽃이 차지했습니다. 박공영 회장님의 눈물 나는 로비로 이룩한 결과이며, 관광객도 많이 와서 문의도 하고 주변 안내도 해주고 여러모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활기찬 장소였습니다.

그날 마치고



모두 떠난 광화문 광장에 홀로 남아서 야경을 만끽해 봅니다. 밤에도 우리꽃의 분홍색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5일간의 전시회 기간 동안 별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이었으며, 전시 기간 중 여러 사람의 방문으로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외국인,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인파가 방문 하였으며, 그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보낸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길 기원 합니다.



숲에서 놀 줄 아는 청년이 숲을 지킨다!

한강에서 노는 청년들! 놀이대장으로 거듭나다.

사진 / 글 이정현

청명한 겨울하늘이 빛나는 한강에서 청년숲문화기획단 <청어>와 한강사업본부와는 지난 9월 한 달간 5회에 걸쳐 놀이대장을 양성했다. '놀이대장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벗어나 생태놀이, 전래놀이, 공동체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익히고 한강에서 어린이와 함께 즐겁게 놀아볼 한강놀이계의 우두머리를 칭하는 단어이다. 보다 많은 청년과 어린이들이 한강에서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생태교육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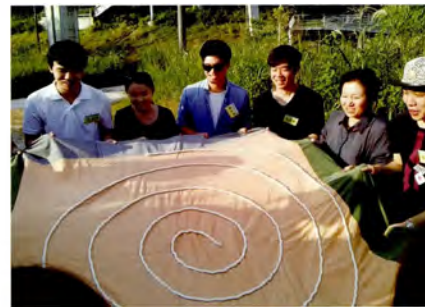
Q. 놀이대장을 신청한 이유는?

A. 여는 청년들과 같은 일상을 보내던 와중에 우연히 놀이대장에 대해 알게 되었다. 스마트폰과 TV라는 시각형의 작은 화면에만 갇혀 사는 아이들에게 전래놀이를 알려주고 같이 노는 것이라는 좋은 취지에 이끌린 것도 있지만 학업과 취업에 시달리며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는 청년들도 아이들과 함께 놀이대장이 되어 논다는 것이 흥미로워서 신청하게 되었다.

Q. 놀이대장에 대한 첫 느낌은?

A. 처음에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과연 내가 놀이대장들과 친해져서 놀 수 있을지 걱정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재치 있고 유쾌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다음 놀이 활동에서 무엇을 할지 기대되었다.

이승현(25)



Q. 막내 동생이 있다면 가장 알려주고 싶은 놀이는?

A. 모든 놀이가 처음 접해보는 것이어서 신기했고 재밌었다. 처음에는 자신과 닮은 자연물을 찾아와서 설명함으로써 초반의 어색함을 풀었다. 어색함이 풀리자 서로 농담도 던지며 다음 놀이장소로 이동했다. 우리는 협동심을 요하는 놀이를 많이 했다. 줄이 꿰매진 천을 모두 다 같이 잡아서 도르리를 옮기는 놀이와 동그랗게 모여 고리를 푸는 놀이를 했다. 이러한 놀이 중에서 고리를 푸는 놀이를 가장 알려주고 싶다. 간단한 놀이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으니 친밀감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리를 풀어 나가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상희(21)



Q. 아쉬웠던 놀이는?

A. 모든 놀이가 유쾌하고 재밌었지만 굳이 하나를 뽑자면 자신과 닮은 자연물을 찾아오는 놀이가 아쉬웠다. 이 놀이를 할 때 소극적인 성격의 아이에게는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방법을 약간 변형시켜 서로의 닮은 자연물을 찾아와서 서로의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았다.

박형우(25)

Q. 실내놀이의 매력은?

A. 이날 우리는 세세세세, 고누놀이와 혼자서하는 실뜨기를 배웠다. 이 세 가지 놀이 모두 적은인원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 불가피하게 야외에서 놀 수 없는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혼자서하는 실뜨기는 실만 있다면 인원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형우(25)



Q. 생각보다 어려웠던 놀이는?

A. 예전부터 고누놀이라는 놀이이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놀이방법에 대해서는 몰랐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접하면서 생각보다 어려운 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 초체스, 장기나 모둠을 즐겨했기 때문에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많은 고민을 요구하고 다양한 놀이규칙에 혼란스러웠다.

박상희(21)





Q. 가장 기억에 남는 놀이는?

A. 딱지치기, 딱지날리기, 마지막으로 땅따먹기까지 딱지치기를 제외한 모든 놀이가 내가 어렸을 적 자주 놀곤 했던 놀이들이다.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서 더 재밌었다. 특히, 초등학교생일 때 초등학교 뒷마당에 땅따먹기 판이 그려져 있어서 쉬는 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뛰어나가서 놀던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땅따먹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김신화(21)

Q. 가장 생소한 놀이는?

A. 땅따먹기는 놀이가 가장 생소했다. 딱지치기란, 땅에 놀이판을 그리고 땅을 던져놓고 발로 차서 하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처음 들었을 땐 땅따먹기처럼 쉬을 줄 알았지만 다리에 힘을 조절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1단계에서부터 고전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실제로 지금도 하는 놀이라는 것에 놀라웠고 어려운 만큼 흥미로워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하기 좋은 놀이라고 느꼈다.

김신화(21)



Q. 놀이대장을 마치며

A.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어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4일 동안 모두와 친해지며 놀 수 있어서 즐거웠고 청년이 되어 잊고 있던 어릴 때의 즐거움을 다시금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단순히 놀려고 왔는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어렸을 적에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했던 놀이가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놀이대장이 되어 내가 배우고 느꼈던 것을 아이들과 나누며 같이 놀고 싶다.

박형우(25)



청어가 진행하는 한강놀이대장은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여의도 섯강 생태공원일대에서 이루어진다. 회당 20명 내외로 모집하며 무료프로그램으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 및 playinfo@forest@gmail.com 으로 문의할 수 있다.

다가오는 겨울, 청년과 어린이들의 유쾌한 만남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http://www.jaramshop.co.kr>

종이컵에 감성을 더하다

한국자람의 3無

~~표백제~~

~~방부제~~

~~형광 증백제~~

· 컵지는 제조공정에서 표백제와 기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갑니다.
· 그러나 이제 이러한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종이용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한국자람 종이컵은 화학표백제를 하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 형광증백제 없는 천연 크라프트지 종이컵, 나노 코팅방식

듀얼 크라프트 종이컵

1줄

판매가 1,990원

옥수수 코팅 종이컵

1줄 50ea

판매가 7,500원

천연 크라프트지 종이컵

13oz 1줄 50ea

판매가 6,000원

친환경 키친티슈

50매

판매가 3,800원



친환경 종이컵

천연 크라프트지로 만든 무표백 무형광 친환경종이컵.

폴, 본드가 아닌 특허 초음파 접착 사용

국내 최초 206g 65oz 종이컵으로 강도가 기존 종이컵보다 우수합니다. 기존 판매컵보다 튼튼하고 두꺼워서 찢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 친환경 PLA 종이컵

100% 천연펄프 무형광 친환경 코팅 PLA종이컵은 옥수수 추출물 코팅을 한 종이컵으로 옥수수 성분에서 추출한 식물성 원료로서 열을 가해도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평 속에서 5개월 내에 자연분해됩니다.



100% 천연크라프트지

무표백 무형광 자람 친환경 종이컵 크라프트지는 섬유질이 길고 질기며 강도가 우수합니다. 화학표백을 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고급스럽고 감성적이며 빈티지디자인입니다. 나무의 향과 함께 리그닌이 살아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사이즈

친환경 키친티슈는 일반키친타올보다 크기가 큼니다.

뽀아쓰는 카친타올로 기름기를 닦을 뿐 아니라 기름 흡수 및 물기 제거, 음식 반찬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에 그대로 닦아도 친환경이라 안심입니다.

한국자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09길7-8
대표전화 070-4334-8642

크리스마스 특집



>> 크리스마스의 유래



크리스마스는 영어로 'Christmas',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고대 영어인 Cristes Maesse에서 유래했다고 전하고 있다. 현재는 Christmas로 표기법이 바뀌었다. Christ는 '메시아(Messiah)' 또는 '성스러운 사람(Anointed one)'이라는 뜻이며, 'Mass'는 종교적 의식인 '미사'를 뜻한다. 즉, 초기에는 예수 탄생 기념하는 미사 형식이었다. 24일 밤, 크리스마스 이브이다. 초대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루를 전날의 일몰로부터 다음날 일몰까지로 쳤기 때문에 이 전야인 이브가 중요시되었다. 그리스도가 12월 25일 오전 0시에 탄생하였다고 하는 확증은 없으며,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만들어낸 신화의 하나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는 신약성서 《마태오의 복음서》나 《루가의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그 날짜에 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은 3세기에 들어와서부터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에는 그 날짜가 일정하지 않아서 1월 6일, 3월 21일(춘분), 12월 25일 가운데 어느 하루가 선택되었다. 크리스마스의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12월 25일 설은 고대 로마에서 지키던 동지날을 채택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에 기념하는 이유는 불확실하지만, 초기 기독교도들이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이라는 로마의 이교 축제와 같은 날에 기념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는 설이 있다. 이 축제는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고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동지를 기념한 것이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전통 관습들은 이교도들이 한겨울에 벌이던 농사 및 태양 의식들과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념이 합쳐져서 생겨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이란 절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다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어 혹독한 핍박의 시기가 지나고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종교가 되었을 때 로마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따르겠다는 절대적인 신앙이 아닌, 국가 또는 이교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과 연합하려는 모습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산타클로스의 유래

산타클로스의 효시로 알려진 인물은 270년경 소아시아 지방(지금의 터키 영토)의 항구 도시였던 파타라에서 태어난 성 니콜라스(St. Nicholas)이다. 그는 자선심이 지극히 많았던 사람으로 후에 미라의 대주교(大主教)가 되어 남몰래 많은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의 생전의 이런 자선행위에서 유래되어 '울지 않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않으면서 한 해를 보내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이야기가 생겨났다고 한다.

오늘날처럼 산타클로스가 순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일반 사람들 앞에 등장한 것은 1822년 성탄절 이브로, 뉴욕의 신학자 클레멘트 무어가 쓴 '성 니콜라스의 방문'이라는 시가 효시였으며, 본래 날렵하고 키가 큰 모습에서 통통한 볼에 뚱뚱한 모습을 하게 된 것은 토마스 나스트라는 19세기의 만화가가 20년동안 잡지에 성탄절 삽화를 그리면서 완성한 것이다.

현재처럼 빨간 옷을 입게 된 것은 1931년 미국 해돈 선드블롬이 코카콜라 광고를 위해 그린 그림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리고 산타클로스의 친구 루돌프 역시 1939년 미국의 카피라이터 '로버트 메이'가 코가 빨간 루돌프 캐릭터를 탄생시켰고 미국의 대형백화점인 '몽고메리 워드' 광고에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정확한 유래로 전해지는 것인데 독일의 마틴 루터 킹목사가 전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 산길을 눈썰인 겨울밤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두웠던 주위가 달빛에 밝아지면서 아름다운 빛을 전나무로부터 목격하게 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전나무에 쌓였던 눈들이 달빛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빛을 비출 때 달빛에 반사어 아름답기 그지없는 눈빛을 쳐다보던 루터목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고 집으로 전나무 가지와 장식을 하였다 한다. 전나무 장식을 하면서 하얀 눈대신 아름다운 꼬마 전등으로 장식을 하여서 달빛에 반사된 눈빛을 대신하여 아름다운 트리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요즘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쌍인눈이 달빛에 반사되어 비추이는 빛을 그리스도인의 역할로 생각하고 달빛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각할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밝은 빛을 받아서 다시 어두운 세상을 향해 반사 시켜서 밝게 비추이는데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며 그러므로해서 밝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담겨있는 진정한 뜻은 바로 반사되는 눈의 역할과 하늘의 광명(생명의 빛) 의미다.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다시 세상을 향해 반사시켜서 어두움을 밝히는 것. 바로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다.

미국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미국사람들의 마음과 뜻의 형상을 신앙적으로 이끌어 주었다. 분주했던 생활 가운데서 시간을 내어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마련하는 등 한해중 가장 눈에 띄이게 사랑이 넘치는 행사이다.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열리는 음악회 행사에 참석하고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하는 축제 프로그램을 즐긴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여러 장식들을 집 안팎에 꾸민다. 대강절 넷째 주일되면 주부들은 빵, 쿠키, 푸딩 따위의 음식을 만들고 가족이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아서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밤이 깊은 줄 모른다. 교회와 성가대원들은 크리스마스가 가까와 올 즈음에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캐롤을 불러주는데, 이때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테 어울려 캐롤을 부른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한 뒤 자녀들이 잠들때 아무도 모르게 양말에 선물을 넣어둔다. 이른날 자녀들은 양말에 든 선물을 받고 기뻐하게되고 그 모습을 보고 부모들은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영국

영국에서의 크리스마스 축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봉건제도 시대에서부터 장원 영주의 저택에서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렸으며 대강절 기간부터 교회나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풍습 역시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여왕의 성탄절 메시지가 크리스마스 아침에 영국 전역에 방송된다. 영국 트리팔가 광장에는 거대하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12월 24일 밤에 통나무를 통째로 들여다가 벽난로 옆에 갖고 놓고 옛날의 풍습대로 온 가족이 통나무 위에 앉아 본다. 그리고 나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새해에는 행운이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통나무를 벽난로 속에 넣기 전에 인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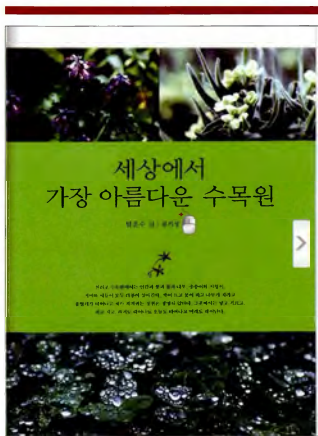
어린이들은 벽난로 또는 화덕 옆에 긴 양말을 걸어 놓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우편배달부, 우유배달소녀, 신문배달 소년, 청소년들에게 장갑, 털구두 따위의 선물을 안겨 주면서 한 해 동안의 수고에 감사한다.

멕시코

멕시코에는 포사다스라고 불리우는 축제가 있다. 포사다스는 12월 16일에 시작되는데 순례자의 축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12월 16일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손님을 기다린다. 포사다스의 본래 의미는 쉼, 휴식이다. 즉,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기거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고생했던 일들을 기억하는 축제가 행해지는 것이다.

각 가정에서는 스페인 이끼와 상록수 가지로 집을 꾸미고 집안의 한 곳을 마구간처럼 장식한다. 소나무 가지와 이끼 따위로 작은 단을 만들고 여기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재현시킨 뒤 그 둘레에 마태복음 및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빈들의 양떼들과 밤을 지새우는 목자들, 큰 별, 동방박사를 꾸미기도 한다. 그런 다음에 이곳 사람들은 다른 집을 방문해서 "빈 방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라는 대답을 그 집의 주인이 하는 등 요셉과 마리아의 베들레헴 순례를 재현하며 축제를 보낸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

저자 임인수 글 | 류기성 | 김영사

천리포수목원에서는...

천리포 수목원에서는 인간과 꽃과 풀과 나무, 송충이와 지렁이 거미와 새들이 모두 더불어 살아간다.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풀벌레가 피어나고 새가 지저귀는 정원은 생명의 쉼터다. 그곳에서는 낱고 기르고, 피고 지고, 과거도 태어나고 오늘도 태어나고 미래도 태어난다.

단 한 사람의 힘으로 30년 동안 만들어진 18만평 규모의 거대하고 역동적인 생명의 정원, 이곳이야말로 풀과 꽃과 나무의 아름다운 천국이다!

주중엔 증권계의 큰손, 주말엔 시골 농사꾼, 한복을 즐겨 입고 한옥을 지어 살았던 푸른 눈의 한국인 민병갈. 전기도 안 들어오고 조금만 파도 소금이 나오는 박토에 그가 세운 아름답고 풍요로운 나무의 천국. 지금까지도 관광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자연우선주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수목원. 시간이 정지된 듯 고요하고 그윽한 수련 연못을 지나 언덕에 오르면 백 년이 넘는 초가집 너머로 나무들의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다. 오래된 낙우송의 고즈넉한 자태가 수면에 드리워지면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가 펼쳐진다.

푸른눈의 한국인이 세운 한국 최초의 민간수목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 이야기

유럽, 중국, 일본 등지의 유명 수목원들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 중의 하나로 꼽히는 충남 태안 지역의 천리포 수목원의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이 출간되었다. 수목원의 초대 원장인 민병갈은 한국에 귀화한 미국인(본명: Carl F. Miller)이다. 그는 25살에 연합군 중위로 해방 직후 한국에 첫발을 디딘 이후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한국인의 순박한 모습에 반해(본문 154~160쪽) 이 땅에 남기로 결심하고, 1979년 귀화한 이후 본격적으로 수목원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천리포 수목원은 예산 규모나 종사자 숫자, 면적으로 따지면 광릉수목원이나 관악수목원에 비해 바가 못되지만, 민병갈 원장의 수십 년간의 열정과 노력은 한 나라의 대통령과 기업의 총수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내고야 말았다. 이 책의 저자 임인수 씨는 어느 매체의 인터뷰를 계기로 민병갈 원장을 만나 그와 12년 동안 세대를 뛰어넘은 우정을 나누고 자연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배웠다. 민병갈이 세상을 떠난 후(2002년) 저자는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들은 민 원장의 인생과 수목원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써 풀어냈다. 더불어 사진작가 류기성 씨는 민 원장의 숨결이 묻어있는 수목원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한 사람의 열정으로 30년 동안 만들어진 자연의 거대한 향연장

민병갈과 천리포와의 인연은 1962년 그가 우연히 천리포에 왔다가 딸의 혼수비용을 걱정하는 노인을 돕기 위해 땅을 사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애초에 그는 수목원을 지을 생각으로 천리포 땅을 산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조금씩 사들인 땅이 3만 평쯤 됐을 때 그는 '아담한 농원'을 꿈꾸며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0만 평 규모로 소유지가 넓어지자 본격적으로 수목원 조성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현재는 18만 평 규모) 뜻밖에도 그가 산 천리포 땅은 기후나 입지, 토양 면에서 천혜의 수목원 자리였다. 국내 및 유사한 기후를 가진 60개국에서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식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목련을 비롯해 약 10,300여 종(2003년 10월 기준)에 이른다.(목련류 410종, 감탕나무류 400종, 동백나무류 320종 등) 수목원 초창기 나무에 대한 열정밖에 가진 것이 없었던 민병갈 원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바닷가인 탓에 물이 모자라고 수맥도 찾기 못해 중장비 없이 삽과 지게 같은 농기구로만 연못을 팠다. 나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민 원장이 외국에서 들여온 어린 나무들 대부분은 천리포 토양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는 나무를 심은 위치와 새로 조성한 화단의 구조를 세밀하게 그리는 등 세심한 기록을 남기며 나무에 대한 늦깎이 공부를 시작했다. 심지어 그는 1970년~1980년대 삼엄한 국가 체제 속에서도 좋은 나무를 확보하기 위해 밀수까지도 감행했었다.(본문130~131쪽) 수목원의 제정을 마련하기 위해 민 원장은 70세가 넘는 노령까지도 서울의 증권회사에서 일하며 수목원을 돌보며,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까지도 병상에서도 식물도감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민병갈의 이런 헌신과 열정으로 천리포 수목원은 국내 식물·원예 분야 및 학과의 전문가들에게 연구 및 실험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1997년에는 세계목련학회를 유치하였고 그 다음 해에는 국제수목학회 및 호랑이 시학회를 유치하여 국제적인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하여 천리포 수목원은 한국 최초의 민간수목원이자 세계수목협회 지정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 목련과 호랑이시 세계 최다수종 보유 수목원, 식물학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수목원이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다.

푸른 눈의 한국인 민 원장의 자연과 한국 사랑

한복을 즐겨 입고 한옥을 지어 살았던 푸른 눈의 한국인 민병갈은 한국인과 한국 문화가 급속하게 변해가는 사실과 각종 개발로 인해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을 가슴아파했다. 천리포 수목원은 나무를 헤치는 송충이를 없애는 살충제를 쓸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무에 송충이가 생겨도 새들을 위해 그냥 내버려둔다. 민 원장은 송충이, 지렁이, 개미, 거미, 새 등이 모두 서로 적당히 잡아먹고 잡아먹히면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내버려두길 원했고 실제로 생태계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갔다.(본문 102~105쪽) 사람들이 수목원에 드나들면 나무들이 몸살을 앓는다는 민 원장의 생각은 지금도 천리포 수목원의 일반인 관람 제한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천리포 수목원은 인간과 꽃과 풀과 나무, 송충이와 지렁이, 거미와 새들이 모두 더불어 사는 곳이다. 민 원장은 자신이 죽은 이후 모든 재산은 천리포 수목원에 남기고, 자신의 시신은 나무의 거름이 되기를 원했다. 그는 '자식처럼 키운 천리포 나무들이 제2의 조국 한국에 바치는 마지막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 민 원장의 말대로 '영원한 미완성'일 수목원은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풀벌레가 피어나고 새가 지저귀는 정원이며 생명의 쉼터다. 천리포 수목원은 낱고 기르고, 피고 지고, 과거도 태어나고 오늘도 태어나고 미래도 태어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이다.

정기구독
16.6% OFF

정사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월간 <가든인> 구독이벤트

-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40% 할인권 제공
-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가드너로서의 소소한 일상을 담아 보내주세요.
- 정기구독 정사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 무통장입금 : 농협 355-0030-2359-03 [우리꽃영농조합법인]
- 문의전화 : 031-712-7009

월간 <가든인> 구독이벤트

-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40%할인권 제공
- 꽃씨증정

문의전화
Tel. 031-712-700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termeden.com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가드너로서의
소소한 일상을 담아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된 독자분께는 가드닝 생활에 필요한
도구 또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기구독
16.6% OFF
정사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무통장입금
예금주 : 농협 355-0030-2359-03
우리꽃영농조합법인입니다.
(입금 후 반드시 문자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셔야 배송
가능합니다.)
문의 : 031-712-7009

Gardenin



40% 할인권
[기간] 2014. 12. 1 ~ 2014. 12. 31

Gardenin

화창한 여름이면 달 아문만큼 재미있게 할까요?
가든인 12월 12일(수)부터 12월 31일(수)까지
가든인 12월 12일(수)부터 12월 31일(수)까지
가든인 12월 12일(수)부터 12월 31일(수)까지

- 이 달에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 <가든인>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your voice!

Gardenin

정사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가든인 정기구독 1년 12권

신청하시는분

이름	성별
이메일	직업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 발송한 우편물들을 위해 정확한 주소를 기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기간	
대금납입방법 무통장입금 (농협) 355-0030-2359-03	예금주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031-712-7009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40% 할인권

[기간] 2014. 12. 1 ~ 2014. 12. 31

이용안내

- 스파 이용에 한해서만 할인 적용됩니다.(사우나 이용 제외)
-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매 2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 본 이용권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이용권은 비매출로 판매 및 영업행위를 하어서는 안됩니다.



AK레저(주)

Tel. 031-645-2000 www.termeden.com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성미로 372-1

월간 가든인

Tel. 031-712-7009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성미로 924번길 87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Gardenin

받는 사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성미로 924번길 87

가든인 Tel.031-712-7009

4 6 7 - 8 7 2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Gardenin

받는 사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성미로 924번길 87

가든인 Tel.031-712-7009

4 6 7 - 8 7 2

편집후기

발행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발행인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박공영 우리씨드(Urseed)그룹 대표 / 이
이순영 前 함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명
고문 김광두 前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겸임교수
김광춘 대원원에종요(주) 대표
김귀순 (주) 그린메이퍼 대표
편집인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전문위원 안원식 농학 박사 / 씨드림대표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한국원에디자인협회 향원회장
유정수 솔개그늘 대표
윤정식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윤평성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前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권 농학박사

각원기자 김지태 기자
황주리 기자
디자인 WorkingCow42@naver.com 010 7399 4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성미로 924번길 87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Gardenin

(주)한국원에자재

월동준비

prepare for WINTER

소목이 높은 작물인 과수는 일단 동해피해를 입으면 회복하는데만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난대성 수종들이 남부지역 외에도 서울,경기권에서도 식재되고 있으나 갑작스런 겨울 폭한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식하여 아직 뿌리가 활착되지 않은 수목과 어린묘목에는 동해가 생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1 나무에 따뜻한 옷을 입히다.

2 추운겨울 수목보온 3 작물,식물 서리방지 4 겨울철 해충잡이

5 지피식물의 보온 6 바람과 제설제방어 7 수목의 지면보온

1.이영 2.월동 보호대 3.막덮기부직포 4.잠복소 5.섬피 6.방풍막

.코코트리매트

딸기 시설재배의 성공을 위한

친환경 알라스카 플러스

맛 UP

(주)한국원에자재 미림가든센터

경기도 과천시 물사랑로 257 (주암동)
Tel. (02)585-5346, 503-7080
Fax. (02)588-9593

미림가든센터

검색창에 '조이가든' 검색



조선왕조 500년 온천의 명소 이천! 품격이 다른 온천수 – 테르메덴



중부·수도권 제일의 온천으로 테르메덴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작가협회 그리고 관광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이천 '테르메덴'을 중부·수도권의 최고의 온천으로 선정하였다. 테르메덴 온천수는 자극성이 강한 유황천이나 산성천 등과는 달리, 알카리성 온천으로 여러 가지 효능의 성분이 골고루 혼합된 온천수이다. 수질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하고 특히 병후 회복과 건강 증진,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완화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삶의 무게를 느낀다면 **단언컨데** 온천욕은 **가장 완벽한 힐링**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시간

이천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제일은행)앞에서
테르메덴 무료 셔틀버스 이용(약 15분 소요) ⇒ 이천 테르메덴 도착

구분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 테르메덴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출발)	테르메덴 ⇒ 이천터미널 (테르메덴 본관 앞 출발)
매일 (월~일)	08:20 09:20 10:20 11:20 13:00 14:20 15:20	12:40 14:00 15:00 17:30 18:30 19:30

※ 만약 달 도로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에이케이레저(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문의 : 031)645-2000